
조극선의 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지식인의 師弟觀, ‘숨김과 드러냄’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I. 머리말

II. 家學의 계승 양상: 知識 授受의 일가적 순환성

III. 숨김의 師弟觀: 李榮元을 중심으로

1. 관계의 실상
2. 숨김의 궤적

IV. 드러냄의 師弟觀: 李命俊을 중심으로

1. 입문 情景: 서울지식인 이명준
2. 서울행과 영덕행: 관계 강화 및 心法 수용을 위한 노력
3. 인조반정과 재회: 學問·經世談論과 관계의 진전
4. 治喪과 계승의식의 표명: 心喪과 褒贈論

V.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17세기 호서지역의 학자·관료 조극선의 일기 『忍齋日錄』 및 『治谷日錄』의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사림계 지식인의 사제관의 실상을 조명하는데 초점이 있다. 조극선은 일생 李榮元·李命俊·朴知誠·趙翼 등 모두 네 명의 스승에게 수학하였는데, 이 글은 ‘숨김’과 ‘드러냄’의 관점을 적용하여 사제관념의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전자의 주요 분석 대상은 李榮元(龍溪)이고, 후자는 李命俊(潛窩)이다.

조극선은 자신의 소년기 스승이었던 이영원의 존재를 숨기려했고, 중국에 가서는 사제관계를 부정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영원의 ‘門閥’과 ‘學問’이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영원이 자신의 학자·관료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즉 ‘利’의 작동이었다. 17세기는 義理와 名分의 시대로 일컬어지지만 어떤 이념도 인간의 利害를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명준은 부모 및 임금과 동급으로 인식되어 극존의 예우를 받았다. 우선 그는 서울의 문벌가문 출신에다 牛溪門下에서 수학하여 기호학의 정통을 이었고, 문과에도 장원한 엘리트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명준은 성품이 개결한 데다 학자적 진지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그 시대가 선망하는 스승의 표본에 가까웠다. 조극선의 잠와문하 입문 또한 ‘利’의 작동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의 지속성은 의리적 투합 위에서 가능했다. 이것은 ‘利’와 ‘義’의 적절한 섞임이 관계성의 지속을 담보하는 구실이 됨을 의미한다. 이 글은 기록의 편집성에서 기인하여 미화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조선시대 사상사 연구에 대한 작은 반성에서 출발했다.

주제어 조극선, 이영원, 이명준, 박지계, 조익, 인재일록, 야곡일록, 사제관, 우계학파, 소론

I. 머리말

이 글은 趙克善(1595-1658)의 일기 『忍齋日錄』 및 『治谷日錄』¹⁾을 통해 17세기 사림의 師弟觀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16세기 중엽 조선의 학계는 李滉·曹植·徐敬德·成渾·李珥 등 석학의 배출을 통해 학파의 시대를 맞았고, 그런 흐름은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17세기는 학파의 정착기인 동시에 당쟁의 가열기였다. 1623년의 인조반정은 향후 300년 서인정권의 초석을 다진 정치적 사건이었고, 이 과정에서 성혼·이이를 종사로 하는 기호학파는 정권의 지원 속에 학문권력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서인 기호학파 내에도 다양한 갈래가 존재했다. 가장 큰 구분선은 이이의 栗谷學派와 성혼의 牛溪學派였다. 이들은 ‘牛栗陞廡論’이나 ‘禮訟’ 같은 정치·학문적 이해 관계의 공유 영역에서는 공동 보조를 취했지만 學風 및 經世觀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전자가 義理·名分을 중시했다면 후자는 現實·實用을 강조했고, 이러한 차이는 숙종 초반에 이루어지는 노소분당의 遠因·根因이 되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조극선은 李命俊을 통해 牛溪學統을 계승했고, 그 자손들은 소론을 표방하게 되지만, 그것으로의 좌정의 과정은 그렇게 단순·명료하지만은 않았다. 조극선의 학자·관료적 성장은 가학을 포함하여 그가 수학했던 諸師와의 관계성 속에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²⁾ 이 글에서는 ‘師弟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조선시대 사상사에서 학통에 대한 연구는 ‘門人錄’·‘及門錄’ 등에 바탕한 도식·계보적 서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문인록’은 문인의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매우 적효한 자료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자료적 믿음이크수록 그 연구는 연역적으로 흐름을 우려가 크다. 이 글에서 지향하는 것은 연구의 귀납성이며, 이런 측면에서 조극선의 일기는 양질의 표본성을 지니고 있다.

1) 趙克善은 15세 때인 1609년부터 41세 되던 1635년까지 26년간의 일기를 남겼는데, 1609~1623년까지의 일기는 『忍齋日錄』, 1624~1635년까지의 일기는 『治谷日錄』이라 표제했다. ‘忍齋’에서 ‘治谷’으로의 표제 변화는 洪暹(1504~1585)과의 號의 중복에서 기인했다. 조극선이 號의 중복을 인지한 것은 1621년이지만 이를 일기 표제에 적용한 것은 1624년이다. 조극선 일기의 원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한 것은 동 연구원 장서각에서 한국학자료총서 시리즈로 간행한 ①『忍齋日錄』(正書本 1·2, 한국학자료총서 48, 2012), ②『야곡일록』(정서본 1·2, 한국학자료총서 49, 2014)이다. 이하 ①은 『忍齋日錄』, ②는 『治谷日錄』으로 약칭한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조명할 예정임을 밝혀 둔다.

이 글에서 중점을 둔 또 한 가지 착안점은 ‘義’와 ‘利’의 문제이다. 사람은 義理를 중시하는 인간집단으로 개념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언행과 사유 또한 의리의 틀에서 집단적으로 미화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흔적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이 ‘文集’·‘遺稿’라 불리는 문헌이다. 문집은 편집된 기록, 특히 사회적 합의를 거친 공간물이라는 점에서 이런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반해 조극선의 일기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못 실상에 가까운 심리와 언행을 담아내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일기에서 드러나는 그의 스승[師]은 모두 네 사람이지만 그는 ‘三師’라 하여 세 사람만 인정하고 있다. 한 사람은 감추고 있는 것이다. 감춤과 드러냄의 심리는 ‘義’보다는 ‘利’의 작동임에 분명하다. 의리의 시대에도 이해관계는 항존했고, 조극선의 일기는 그 유동성의 실체를 보여준다. 이것이 17세기 지식인의 ‘사제관’ 해명을 위해 조극선의 일기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II. 家學의 계승 양상: 知識 授受의 일가적 순환성

조극선가는 조선 개국공신 趙溫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勳舊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선초기까지 서울 및 경기 일원에 세거기반을 두고 있었던 한양조씨는 15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서울에서 湖西로 주거 기반을 변동하게 된다. 주거의 이동은 권력 중심부로부터의 점진적 이탈이자 훈구적 색채의 탈색 행보로 볼 수 있다. 각기 盈德 金氏와 平山申氏라는 재지 사족과의 혼맥을 통해 이루어진 趙璫의 흥주 綠雲洞 정착, 그 증손 趙鵬의 덕산 大治谷 이거는 처가로부터의 경제적 수혜의 과정이었다.

조곤의 덕산 정착 이후 한양조씨는 그 아들 趙興武(1532~1601)의 탁월한 ‘治産’ 능력에 힘입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게 된다. 裕餘한 물적 자산은 자연스럽게 일가의 在地的 기반강화 및 학문적 역량의 확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투자되었다. 아들 趙景璉(1565~1639)이 지역사회에서 識者로 行身할만큼 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정진은 중년 이후 서당 훈장에 선임되어 향촌에서는 ‘師’의 범주에 들 수 있었지만 그에게 할애할 수 있는 교육자 내지 학자적 좌표가 ‘蒙

學'과 '鄉儒'의 수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조정진은 식자층으로 활동하며 '學業'을 '일가의 世業'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는 컸다. 조극선은 아버지의 지식문화적 역할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창신공(趙興武)이 여절공(趙鵬)의 묘소 옆에 齋宮을 짓고 智瑩이란 제법 학식을 지닌 승려를 맞아 이곳에 거처하게 하여 선군이 句讀을 훈습하는 것을 돕게 했다. 선군은 異流를 스승 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끝내 그의 가르침을 달가와하지 않고 스스로 스승을 가려 全有倫에게 수학했다. 매일 새벽 전유륜의 문하에 나아갔는데, 날씨가 아무리 궂어도 게으름을 피는 법이 없었다. 이에 전공이 늘 칭찬했고, 이웃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들도 讚歎해마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날 전공에게 배운 것을 두 아우에게 가르치며 함께 권면하여 아버지나 스승이 警責하는 번다함이 없게 했다. 집안에 마땅히 입을 서책이 없으면 손으로 베끼고 입으로 외웠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독실했다.³⁾

조극선이 표현코자 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승도로부터의 수학을 거부했던 순정한 유학자', '全有倫을 통한 주자학적 門路의 확립', '아우[景瑗·景瑜]들에 대한 가르침과 相長'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지막의 아우들에 대한 교육인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실체이다. 즉, 조흥무는 일생 治産에 전념하여 학문적 소양을 기르지 못한 대신 유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들들을 교육시켜 일가의 지적 환경을 개선시켜 나갔는데,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차자 조정진이었다. 조정진의 스승 전유륜의 학문 계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7세기 호서 지역 사람들의 학문 경향을 고려할 때, 그 또한 기호학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조정진의 '敎弟論'은 가내의 교육적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지적 온축 및 확장성을 지니게 된다. 조정유와 조극선 사이의 '叔姪授受'가 조정진과 조정유 사이의 '兄弟授受'의 확대 또는 회귀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근거가 된다. 『인재일록』 및 『야곡일록』에 한정할 때, 조극선에 대한 조정진의 가르침의 밀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

3) 趙克善, 『治谷集』卷6, 〈考梅塢處士府君行狀〉, “彰信公因立齋宮于墓側 迎文僧號智瑩居之 以資先君訓習句讀之地 先君耻師異類 終不屑 就自擇師 受學於全公有倫 逐日晨詣其門 雖雪霜風雨 不少懈 全公每加嘆賞 里閭觀者嘖嘖 歸以所學 自授二弟 相與勉勸 不煩父師之警策 家無書籍 手抄口誦 長而益篤.”

다. 그는 1616년 5월 30일 蒙學訓長에 임명될만큼 지역사회에서 識者로 통했지만 아들 교육에 대한 명시적 애착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조극선은 아버지가 조성한 학문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부자간 교육 및 학문적 담론의 자취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조극선은 어떤 경로를 통해 家法 또는 家學을 계승한 것일까? 조경진을 대신하여 조극선의 성장기 교육을 담당한 사람은 숙부 조경유였다.⁴⁾ 두 숙질의 관계를 조경진·경유 사이의 '兄弟授受'의 확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의 광의적 측면에서 조경진은 조극선의 많은 것에 개입하고, 또 관여한다. 同寢·同食은 생활 예법의 일상적 훈육의 방식이고, 각종 마을행사 및 弔問 수행은 일종의 '社會化教育'에 해당한다. 때로 조극선은 숙부의 科行에도 동행한다. 동행의 일차적 이유는 배종을 통한 편 의 제공에 있겠지만 이를 통해 그는 과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행정 절차를 숙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선행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조극선이 20세 되던 1616년(광해 8) 4월 조극선은 조경유와 함께 공주 利仁驛에서 약 열흘을 유숙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숙부로부터 관청 출입의 절차, 대인관계[應接]의 법도 등을 직간접적으로 배우는 한편 문장 및 문서규식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으며 식견을 확대하게 된다. 종전까지의 자잘한 가르침이 마을 또는 향촌이라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다면 객지[大處]로의 공간 및 환경 변화는 대화의 확장성 및 質實性을 수반했다.

그렇다면 숙질은 利仁의 驛樓에서 어떤 대화와 문답을 주고받았을까? 질문의 본질은 예법과 관련하여 미심쩍은 대목을 확인하는 데 있었지만 조극선이 처음 꺼낸 화두는 무척 생경하게 들린다.

4월 24일. 낮에 숙주께서 나가시자 함께 누에 임하여 대화했다. 다소 무료한 느낌이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 극선은 궁벽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났고, 성장하면서도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탓에 禮容에 매우 어두워 마치 담장을 마주하고 선 것처럼

4) 혈통상 趙景瑜는 趙興武의 4자, 趙景璣의 막내아우였으므로 조극선에게 숙부가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조경유는 11촌 숙부 趙興仁을 계후한 바, 계통상 두 사람은 13촌 숙질관계가 된다. 그럼에도 『治谷日錄』에는 생가로 계촌하여 조경유를 숙부, 그 아들 從善을 중형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 사례는 17세기 이후 宗法의 확산과 함께 계후가 일반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計寸 및 呼稱에 있어서는 生家를 기준했던 것이 관행이었음을 대변하고 있다.

럼 앞이 캄캄할 따름입니다.⁵⁾

약간의 謙意를 덜어내더라도 그는 禮治國家 17세기 조선의 사족임에도 스무살이 될 때까지 書翰·弔狀의 칭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숙부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 이 대목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 許筠이 八高祖를 기억하지 못해 鄭崑壽로부터 무안을 당한 일화가 새삼스럽지 않는 것은 조선 및 조선 사람들을 미화해서 인식했다는 반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한번은 鄭西川(鄭崑壽)을 찾아가니 공이 갑자기, “자네는 八高祖를 아는가? 하나하나 말해 보게.” 하므로, 내가 8고조를 몰라 명하니 있으니, 西川이, “內外祖와 母親의 내외조 및 아내의 내외조이다.” 하였다.⁶⁾

조극선의 질문은 이어진다. 부모에게 拜禮를 행함에 古禮에 있는 四拜 또는 六拜의 현실성 여부, 선조의 묘소를 지날 때 평상과 비상시에 행해야 하는 禮의 정도, 忌祭時 신위의 排設 규모 등 역시 예법 관련 주제들이었고, 이에 대한 조경유의 대답은 자세하고 친절했다.

이로부터 나흘이 지난 4월 28일 저녁 숙질은 역루에서 다시 만나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이 날의 주제는 ‘諱’와 ‘事長之道’였다. 조상의 名字는 대수를 불문하고 ‘諱’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숙질간 이견은 없었다. 조극선의 의아스러움은 따로 있었다. 避諱의 정신에 입각할 때, 선대의 기일에 자손은 음식과 宴樂을 자제하는 것이 예법인데, 지금의 관인들은 국가에는 行素하면서도 자신의 高祖 기제에는 이를 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조상을 임금의 조상보다 하찮게 여기는 풍조’를 꼬집은 것인데, 조극선의 이런 발상은 ‘孝’를 강조하는 조선 후기 유학자의 사유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하다.

뒤이은 ‘事長之道’에 대한 질문은 사회적 활동을 염두한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반영하는 매우 긴요한 문제였다. 후술하겠지만 조극선은 15세 때인 1609년(광해 1) 12월 현감으로 부임한 이명준을 사사하였는데, 이명준은 그가 섬긴 첫 번째 外傳였다.

5) 趙克善, 『忍齋日錄』, (丙辰4月24日)(1616).

6) 許筠, 『惺所覆瓿』 卷22, 說部1 (惺翁識小錄上).

이명준과의 사승은 지식의 授受를 넘어 조극선의 기호학통 편입을 구체화한 학문적 행보였던 바, 그의 생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하지만 이명준의 해직과 귀경, 서울[李命俊]과 덕산[趙克善]이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사제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 대안으로써 또 다른 외부와의 학연을 모색하던 조극선에게 ‘事長之道’는 매우 긴요한 대화의 주제일 수 밖에 없었다. ‘事長之道’에 관한 숙질의 대화는 존장의 범주와 기준을 정하는 ‘尊長論’에서부터 시작되었다. ‘尊丈’에 대해 조경유는 아버지의 執友나 연령과 덕이 높은 자에게 한정되는 호칭으로 규정한다. 아버지의 집우의 경우 설령 연령 차이가 적더라도 존장으로 예우해야 하고,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 避道·下馬하여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에 따르면, ‘존장’은 길을 비켜주고,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어만 한 자로 정리된다. 물론 존장에 대한 규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7세기 초반 호서지역 기호학과 계열 사족의 尊長認識은 이런 것이었고, 조극선은 그것을 숙부로부터 배우고 있다. 이른바 ‘家學’·‘家風’·‘家道’·‘家法’은 이런 가르침과 배움의 지속적 축적의 結晶이라 할 수 있고, 조경진→경유→극선으로 이어지는 德山の 趙氏家學은 조극선의 학자적 성장과 함께 그 질과 양이 보다 확충되면서 ‘冶谷家學’으로 구체화되어 傳家の 학문적 자양분으로 기능하게 된다. 조경유와 조극선 사이의 담론은 일견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의 축적은 家法 및 知的 전승의 핵심 元素로 기능하고 있음을 조극선 일기는 웅변하고 있다.

Ⅲ. 塾論의 師弟觀: 李榮元을 중심으로

1. 관계의 실상

『인재일록』, 『야곡연보』 등의 기록에 따르면, 조극선이 ‘家庭之學’의 범주에서 벗어나 비로소 外傳을 섬긴 것은 15세 때인 1609년이다. 李命俊과의 학연에서 시작된 사제관계는 朴知誠·趙翼으로 확대되면서 그는 모두 3명의 외부를 섬기게 된다.

하지만 그의 일기(『忍齋日錄』 및 『冶谷日錄』)를 꼼꼼히 들여다 보면 조극선은 사승

관계에 있어 무언가를 은폐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명준·박지계·조익과는 ‘師’와 ‘弟’라는 수직적 관계성을 전제하여 학문적 受惠意識 또한 매우 애뜻하게 표현된 반면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高德 출신의 유학자 李榮元(?~1623)이다. 이영원은 아버지 조경진의 사우였고, 德山과 高德은 같은 생활문화권이였다. 교육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조극선의 용계문화 출입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또한 그는 豪爽한 氣絶과 준수한 학식으로 사림의 인정을 받았으므로 師道의 自處가 어색할 것도 없었다.

그러면 이영원은 어떤 인물이며, 사림에서의 학자적 인지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그의 유고 서문[龍溪處士遺稿序]과 묘표[龍溪處士李公墓表]를 송시열이 찬술한 것에 미루어 볼 때, 서인 기호학과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지닌 인사였음에 분명했다.⁷⁾ 송시열의 표현을 빌자면, 이영원은 명성을 구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명성이 드높았던 호걸, 구차하게 利祿을 탐하지 않고 종신토록 본분을 지킨 선비, 眞을 지키고[守眞] 和를 보존했으며[保和], 德을 숨기고[匿德], 빛을 감춘[藏光] 순정한 유학자[醇儒]였다.

선비로서 세상 일을 내던져 버리고 인간을 깔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아준 이는 바로 호가 용계 처사이고, 자가 子善인 이공 榮元이다. …… 곧으면서도 세속과 단절하지 않아서 당시 공경대부와 서로 왕래했으나 그들의 천거는 끝내 받지 않았으니, 선비로서 본분을 지키다가 세상을 마친 것이다. 그가 이미 죽은 뒤에도 사대부의 欽慕는 오히려 줄지 않아서, “공은 眞을 지키고 和를 보존했으며, 덕을 숨기고 빛을 감췄으며 많은 문건을 내부에 요약하였고, 擧止가 아울러 높았다.”고 했다.⁸⁾

이영원은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 詩格이 고상하고 淡蕩하였으며, 權鞮·任叔英 등

7) 이영원의 본관은 함평으로 증조는 左通禮를 지낸 世達이고, 조부 允字와 允字 아버지 璜은 각기 현감, 군수를 지냈다. 직계의 환력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숙부 李瑒의 아들 敬元(庶尹)·春元(監司) 및 그 자손들은 크게 번성했다. 宋時烈의 首門으로 기호학통의 적전으로 인식되는 權尙夏는 李敬元의 외증손이다. 이영원의 경우 아들 斗陽은 목사에 그쳤지만 외손, 특히 목사를 지낸 차녀서 韓壽遠의 자손 가운데 현달한 자가 많았다. 한수원의 장자 韓聖輔는 府尹, 그 아들 配夏는 관서를 지냈고, 4자 韓聖佑는 이조참의, 사위 尹敬敦는 부제학과 감사를 지냈다. 특히 윤경교는 成潭의 사위로서 牛溪學統의 계승자로 일컬어지는 尹燾의 長曾孫이다.

8) 宋時烈, 『宋子大全』 卷139, 〈龍溪處士遺稿序〉.

당대 문단의 거장들과 두루 교류했다. 중년 이후에는 金長生의 문하에 나아가 성리학에 전념하여 학문이 더욱 높아졌고,⁹⁾ 행의 또한 고매하여 사우들의 추종을 받았다고 한다.¹⁰⁾ 金尙憲이 그의 중제 李春元의 묘갈명에서 이영원의 존재를 특정한 것에서도 사림 사회에서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공에게는 從兄 榮元이 있었는데, 자가 子善이다. 시를 잘해 젊어서부터 공과 더불어 우열을 다뤘다. 늘그막에 몸을 숨기고 수양함으로써 동류들 사이에 인정을 받아 行誼로 조정에 천거했다. 조정에서 불러 쓰려고 하였으나, 미처 나아가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세상 사람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¹¹⁾

기록상 조극선과 이영원의 첫 만남은 1616년(광해 8) 2월 14일 개장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이영원의 前室 우봉이씨 묘소에서 이루어졌다. 개장에 경황이 없던 터라 긴 한 대화를 주고받지는 못했지만 이영원은 조극선에게 李命俊의 안부를 전해주는 친절함을 베풀었다. 상대가 궁금해 하고 있을 법한 것을 미리 귀뜸해주는 친절은 ‘조극선은 잠와문인’이란 인식의 반영이다. 이 짧은 만남에서 간파할 수 있는 정보는 두 사람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첫 대면에서 볼 수 있음직한 언어나 예법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舊面이었고, 이보다 이른 시기에 사제 또는 거기에 준하는 관계를 맺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 실마리는 1613년 8월 3일 밤 ‘꿈의 기록[記夢]’에서 찾을 수 있다.

8월 3일. 이날 밤 꿈에 종형과 함께 고산에 가서 龍溪(李榮元)를 뵈었다. 혹은 이 사람이 海平府院君(尹根壽)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과연 용계가 맞았다. 나로 하여금 두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을 쥐게 하고는 어루만지면서 통곡을 하며 말하기를, “애석하게도 나는 임금을 만나지 못했지만 너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너의 기상을 보니 생전에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죽을 사람은 결코 아니므로 너는 모름지기 그 때를 기다려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9) 金長生, 『沙溪全書』 卷47, 附錄, 「年譜」(李榮元).

10) 宋時烈, 『宋子大全』 卷194, 〈龍溪處士李公墓表〉, “公侗儻豪爽 不以俗自累 其爲詩俊逸清越 與權石洲任疏菴諸公友善 爲清歡契 清陰文正公兄弟亦推重焉 沙溪文元公愛公寡欲 勉以從事儒學.”

11) 金尙憲, 『清陰集』 卷30, 〈忠清道觀察使九畹李公墓碣銘并序〉.

이 말까지는 肉談으로 언급했고, 그 나머지 말은 문자로써 언급했는데, 꿈에서 깬 뒤에 잊어버려서 기록하지 못한다. 이는 참으로 괴이한 일이라 여기에 기록하여 평생의 觀省으로 삼고자 한다.¹²⁾

비록 꿈이지만, 龍溪, 즉 이영원에게 조극선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설원을 부탁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아울러 조극선의 관상에 빗대어 출세[出仕]를 보증하는 듯한 언설에 담긴 관계성 또한 예사롭지 않다. 임금을 만날 수 있는 출세와 연결되는 말은 ‘과거’와 ‘출사’이다. 조극선은 이영원으로부터 출사를 위해 과문을 배우면서 아낌과 기대를 받았음이 분명한데, 위 꿈의 기록은 이런 추론에 설득력을 더해 주는 허상[夢]에 가탁한 사실의 반영이다.

2. 숨김의 궤적

짐작컨대, 조극선은 1613년 8월을 전후한 시기부터 용계문하를 출입했고, 이런 행보는 1623년 이영원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가 1618년 윤4월 22일 潛治門下[朴知誠]에 입문하고, 동년 11월 2일 浦渚門下[趙翼]에 입문할 때까지 이영원은 가장 지근한 거리에서 조극선의 학업을 지도하고 삶의 방향을 조인한 존재였지만 그는 한번도 ‘龍溪’를 ‘先生’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 조극선은 지식의 획득과 식견의 확충이라는 현실적 수혜 속에서도 ‘等位意識’을 가지고 이영원을 裁量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요컨대, 이영원은 ‘名實’ 양측적 측면에서 자신의 학자적 인생을 대변할만한 師로 표방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조극선은 잦은 왕래 및 서신을 통해 이영원과의 학연을 지속했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奇別 또는 稟議하는 예법도 최대한 지키려 노력했다. 예컨대, 1616년 9월 22일 조극선은 이명준을 방문하는 영덕행을 앞두고 이영원을 찾아가 이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사제간이 아니라면 굳이 갖출 필요가 없는 절차였고, 이영원 또한 작심한 듯 정곡을 찌르는 경계성 당부를 더하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사제로 얽힌 둘의 관계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만다.

12) 趙克善, 『忍齋日錄』, 〈癸丑8月3日〉(1613).

9월 22일, 고산에 가서 용계를 뵈고 영덕으로 가고자 하는 뜻을 말씀드렸더니, “비록 아름다운 일이지는 하지만 책을 읽기 좋은 때를 허비하게 되면 학업에 크게 방해가 되어 독서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늙은이의 말이라고 해서 망령되어 여기저기 말고 돌아와 너의 아버지와 상의하여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¹³⁾

그러나 조극선의 영덕행을 끝내 만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영원은 이튿날 이명준에게 부칠 편지를 보내왔고, 이로부터 이들이 지난 9월 25일 조극선은 예정대로 영덕을 향해 떠났다. 이런 곡절 끝에 단행된 영덕행은 용계문하로부터의 완만한 이탈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만큼 이영원에게는 상심의 앙금으로 남았다.

조극선이 영덕으로부터 환가한 것은 동년 11월 2일이고, 동월 15일에는 이명준의 답서를 전하기 위해 이영원을 방문했다. 이명준의 서간을 전한 뒤 韓愈의 문장을 辨釋하고 이영원이 내린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이 만남의 전부였고, 영덕행을 앞둔 시기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1617년 2월 9일 조극선은 신년 문안차 고산으로 가서 이영원을 뵈었다. 이날 저녁 이영원은 덕담의 형식을 빌어 조극선을 비롯한 여러 문생들의 학자적 行身을 경계하는 훈사를 내렸다.

2월 9일, 사람이 학문을 함에 우선해야 할 것은 養生이다. 양생의 도는 女色을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학문을 이룰 수 없다.¹⁴⁾

영덕행에 따른 갈등 속에서도 이영원은 여전히 조극선을 애중하게 대하면서 기대의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조극선은 이영원과 論文·論禮의 기회를 자주 가졌고, 이영원 또한 조경진이 주도한 이명준 ‘救護論’에 힘을 보태는¹⁵⁾ 등 표면적인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호칭 변화이다. 종전까지 조극선은 이영원을 지칭할 때 ‘龍溪’라는 칭호만 고집했다. 그러던 것이 1622년부터는 약간의 변화를 수반하여

13) 趙克善, 『忍齋日錄』, 〈丙辰9月22日〉(1616).

14) 趙克善, 『忍齋日錄』, 〈丁巳2月9日〉(1617), “龍溪訓曰 人之爲學 宜先養生 養生之道 愼色爲大 苟不慎之 無以爲學.”

15) 趙克善, 『忍齋日錄』, 〈辛酉6月2日〉(1621).

‘龍溪李公’, ‘龍溪李榮元氏’란 호칭이 등장한다.¹⁶⁾ 조선시대의 문자 관념상 ‘公’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師’로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고,¹⁷⁾ 사족 사회에서 ‘氏’는 평칭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다. 사실상 師의 위치에 있었던 대상을 ‘公’과 ‘氏’로 호칭한 것은 분명 폄하였고, 그 폄하는 ‘이탈 욕구’의 암시였다.

이런 상황에서 1623년 5월 9일 이영원이 사망했고, 이들이 지난 11일에야 부음을 접한 조극선은 자신의 일기에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5월 11일. 오늘 용계 이공이 초9일에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들었다. 長者께서 돌아가심에 몹시 놀랍고 슬프다.¹⁸⁾

애도의 어조 속에서도 ‘스승의 죽음’을 접한 문인으로서의 충격 또는 절망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이영원을 ‘長者’로 호칭하며 끝내 ‘稱先生’하지 않고 있다. 聞訃 이후의 행동은 더욱 의아스럽다. 師喪을 당한 문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문상하고, 치상의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¹⁹⁾ 조극선은 문상조차 실기함으로써 무수한 의혹을 남기게 된다. 용계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종형 趙從善은 5월 13일에 문상했음에 비해 조극선은 사후 20일째 되던 5월 28일에야 문상의 예를 갖추게 된다. 그것도 비난적 사론에 떠밀려 문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5월 28일. 고산으로 가서 용계를 곡했다. …… 二兄(趙從善)이 말하기를, “그저께 숙

16) 趙克善, 『忍齋日錄』, 〈壬戌1月11日〉(1622), “朝龍溪李公以書來弔 曾以白米一斗七升.”; 〈壬戌2月10日〉(1622), “福壽乃龍溪李榮元氏妹家奴子也.”

17) 宋時烈이 ‘成文潛墓碣’에서 成文潛을 ‘先生’이 아닌 ‘公’으로 칭하자 尹宜舉가 강한 불만감을 드러낸 것은 ‘先生’과 ‘公’의 인식상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宋時烈, 『宋子大全』 卷71, 〈答李擇之癸丑八月一日別紙〉, “因又記尹友無恙時 請稱其舅滄浪 公以先生 愚與春兄持之甚力 尹友亦爭之不已 末後乃曰 於愚伏亦稱之以此而今乃斬之於滄浪 何耶 春兄頗以爲不安而曰 以此不大段事 葛藤漸生 不若勉從之爲愈也 其事遂至於歸宿矣 蓋下此二字於愚伏諡狀者 非吾之臆斷 蓋有所受者 而非之者 不但尹友一人而已 雖甚悚仄 而亦不以爲悔矣 未知如何 後便示之.”)

18) 趙克善, 『忍齋日錄』, 〈癸亥5月11日〉(1623), “是日聞龍溪李公初九日捐世之訃 長者逝矣 頗甚驚悼.”

19) 예컨대, 1571년 12월 조식의 병세가 위독했을 때 정구는 열흘만에 성주에서 진주로 달려가 임종을 지켜보는 물론 동문들과 치상을 논의하여 스승을 예장한 바 있다. 안장 때는 장지로 달려가 곡하고 아버지와 임금을 위하는 정도와 같은 정성을 충분히 다했다고 한다(鄭述, 『寒岡全書』, 『年譜』, 〈壬申〉). 그리고 1620년 1월 5일 정구의 사망 시 이윤우는 스승을 시축하며 임종을 지켰고, 西時에 고종하자 護喪으로서 사문의 치상을 주관한 바 있다(李潤雨, 『石潭集』 卷4, 〈泗濱護喪錄〉, “初五日 吾與以直叔發侍側 先生各呼三人之字 纒纒言說而皆不得省矣 未時扶起而坐 命着冠 俄而就寢 西時屬續舉哀 諸友以潤雨爲護喪 分定諸執事”). 師喪에 따른 문인들의 대응방식은 이와 같은 것이 통례였다.

부계서 縣衙에 가셨을 때, 李長元氏가 좌중을 향해 말을 내뱉기를 ‘인정의 투박함이 참으로 탄식스럽다. 조극선은 일찍이 나의 아우(李榮元)에게 수학했는데, 지금 아우가 사망했음에도 弔喪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자 地主계서 ‘일찍이 이 사람은 操行이 있는 자로 알고 있었는데 수학한 사람에게 조상하지 않았다면 어찌 조행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했다.²⁰⁾

위 인용문에 따르면, 이영원 측에서는 조극선을 ‘용계문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고, ‘問喪缺禮’를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조극선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조극선은 각종 祭祀로 인해 조문이 지연되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奉祀의 의무가 같았던 중형 조종선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은 떨어진다. 무엇보다 조극선이 억울하게 여긴 것은 ‘龍溪門下受學說’이다. 이를 인정할 경우 그는 사제간의 義理를 훼손한 자로 낙인될 수 밖에 없었다. 1623년 5월 28일자 일기에 적힌 짤막한 변명의 글은 그의 심리 상태를 간명하게 대변한다.

5월 28일. 내가 龍溪에게서 受學했다는 말은 李長元 씨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²¹⁾

결국 조극선은 ‘問喪論難’의 와중에서 ‘용계문인설’을 부정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영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輓詞나 祭文도 남기지 않았다. 이는 1630년(인조 8) 12월 27일 이명준 사망 시 상차에 머물면서 문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박지계·조익의 상례 때 輓祭를 지어 애도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현상이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이영원과 조극선의 관계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義’와 ‘利’의 분별의 어려움이다. ‘義’와 ‘利’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양자의 연결 부분을 절단하여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조극선 또한 이 대목에서 갈등했던 것이다. 이영원과의 학연은 분명 義理의 맺음이지만 그것의 지속과 표방이 자신의 사회·학문적 성장에 도움[有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점진적 이탈을 꾀해 왔던 것이고,²²⁾ 마침내 ‘수학설’을 부정

20) 趙克善, 『忍齋日錄』, (癸亥5月28日)(1623).

21) 趙克善, 『忍齋日錄』, (癸亥5月28日)(1623), “受學之言 李長元氏實誤矣.”

22) 이영원과는 달리 金長生에 대해서는 상당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조극선과 김장생의 관계는 1616년

함으로써 '義'의 단절을 自명한 것이다. 이것이 비단 조극선의 예에 국한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조극선의 경우는 조선의 지식인 사회를 기계적, 도식적으로 바라보는 연구 시각에 작은 물음을 던지는 단적인 예일 뿐이다.

IV. 드러냄의 師弟觀: 李命俊을 중심으로

1. 입문 情景: 서울지식인 이명준

조극선이 자신의 일상과 학자적 삶의 자취를 기록한 일기 『忍齋日錄』(1609~1623)의 시점은 15세 되던 1609년 12월 3일이다. 아래는 그 첫 기사인데, 향후 전개될 조극선의 생애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12월 3일. 중형과 함께 지주 李候(李命俊)에게 『唐音』을 배우기 시작했다(이름은 明俊, 자는 昌期이다). [일찍이 여름부터 여러 학도를 따라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현 아에 들어가 考講했다. 이때부터 우리 두 사람은 직접 受業했고, 뒤에 李紘·全海龍도 직접 가르침을 입었다.]²³⁾

8월 5일 서울에서 이명준의 조카 李碩基로부터 『家禮輯覽』을 借覽하는 기사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때 조극선은 '集覽[輯覽의 誤記]은 김장생이 편집한 것이다'고 하여 김장생의 존재를 명기하고 있다(趙克善, 『忍齋日錄』, 〈丙辰 8월 5일〉(1616), "出南大門外 見李德興囑寄以送盈德書 其庶兄晉基同在 而李行進在畿不返云 乃叙別歸 借得其家禮集覽 集覽者 金長生所集也"). 그리고 1619년 10월 24일에는 윤여해로부터 역시 김장생의 저술 『小學疑義』를 借覽했고, 1620년 6월 29일 이 책을 구독했을 때는 김장생을 '沙溪先生'이라 칭하고 있다(趙克善, 『忍齋日錄』, 〈庚申 6월 29일〉, "偶得沙溪先生所解小學"). 이런 맥락에서 그는 자신이 초한 '弟喪節目'을 김장생에게 보내 수정을 부탁했는데, 1622년 5월 18일 김장생의 답변서를 받고는 '汝任을 통해 弟喪節目의 修正을 沙溪에게 부탁한 까닭에 오늘 이 답서가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늘 선생을 찾아 뵙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는데, 지금 답서를 받고 보니 感幸함이 적지 않다'고 하며 격한 감동을 표하고 있다(趙克善, 『治谷日錄』, 〈壬戌 5월 18일〉(1622), "追錄[再昨夕得見尹汝任書及沙溪先生疑禮答目 盖余頃以弟喪節目 質諸朴·趙兩先生 而又因汝任 求正於沙溪 故今有是答也 余常恨不得往謁 而今承惠答 感幸實不些]"). 김장생에 대해 존모의 감정을 숨기지 않은 조극선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김장생이 학덕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초반 기호학파의 영수라는 현실적 위망과 결코 무관치 않다. 그[金長生]와의 가까움은 그 시대 사람들이 외면하기 어려운 '利'였기 때문이다.

23) 趙克善, 『忍齋日錄』, 〈己酉 12월 3일〉(1609).

이명준에게 친히 수업을 받은 날을 일기의 시점으로 삼은 것은 조극선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극선이 덕산현감 이명준을 면대한 것은 1609년 여름이었지만 이때는 매월 두 차례 考講을 위해 縣衙를 출입했을 뿐 학문적 수준의 과정은 아니었다. 특히, 고강은 ‘守令七事’의 하나로 규정된 지방관의 의무였으므로 공무 수행의 일환에서 경내 유생들의 학업을 집단 點考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12월 3일의 상황은 공적 관리의 대상에서 사적 가르침의 대상으로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즉, 조극선은 ‘덕산현감 이명준’의 치하 유생에서 ‘잠와 이명준’의 문인이 되어 그 관계 성을 크게 확장했던 것인데, 바로 이 지점에 의미의 특별성이 내재되어 있다. ‘학문에 뜻을 둔다’는 ‘志學’의 나이에 문벌과 학식을 겸한 인물과의 학연은 인생 설계의 전환점을 이루기에 충분했다.²⁴⁾ 일기의 작성은 그런 인식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지선의 가치로 삼았던 조극선에게 이명준은 무척 닮고 싶은 표본이었다.

이명준은 병마절도사를 지낸 李濟臣의 아들로 1603년 문과에 장원했고, 1604년에는 서장관으로서 명나라에도 다녀 온 엘리트 관료였다. 중앙에서 예조·병조·형조의 좌랑 및 정랑을 역임한 뒤 첫 외직으로 임명된 곳이 충청도 德山縣이었다. 아버지 이제신이 남명문인이고,²⁵⁾ 자신은 李廷籙·李恒福·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편향성은 적었지만 굳이 학통을 단선화하자면 牛溪門人으로 규정할 수 있다.²⁶⁾ 이제신의 4남[耆俊·壽俊·考俊·命俊] 2녀[申欽·閔有慶] 가운데 출계한 이구준을 제외한 전원이 문과 출신일만큼 淸江家門의 환력은 돋보였고, 특히 선조가 永昌大

24) 文治를 표방했던 조선시대의 관료는 ‘官人’인 동시에 ‘學人’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내 유생과의 사승관계로 발전한 예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초반 영남학계를 이끌었던 鄭述·鄭經世가 대표적 경우에 속한다. 정구는 청년기 성주훈도 吳健[南冥·退溪門人], 성주목사[退溪門人] 黃俊良을 사사하여 남명·퇴계학풍을 체합했다. 정구의 퇴계·남명문화 입문도 이들 두 사람의 교량적 역할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 정경세의 경우 1580년 상주목사로 부임한 柳成龍을 사사하여 李滉→柳成龍을 거쳐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西厓學脈의 적전의 지위에 올랐다(김학수, 『鄭述(1543-1620)의 학자·관료적 삶과 안동부사 재임』, 『영남학』 17, 2010; 김학수, 『寒岡 鄭述의 學問淵源』, 『한국학논집』 4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5) 『德川師友淵源錄』, 「師友·門人」, 〈李濟臣〉. 이에 따르면, 이제신은 曹植으로부터 원대한 재목으로 인정받았고(公來拜先生 先生期以遠大), 晉州牧使 재직 시에는 祭文을 지어 치제한 바 있다(曹植, 『南冥集』 卷3, 附錄〈祭文(晉州牧使李濟臣)〉).

26) 李恒福·李廷籙에게 수학한 것은 15세 때인 1586년(선조 19)이고, 牛溪門下에 입문한 것은 24세 때인 1595년이다. 수시로 就實했던 자형 申欽 또한 그의 초년기 학업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비록 우계문화 입문이 가장 늦었지만, 김상헌이 ‘李命俊神道碑銘’에서 성혼을 ‘모범으로 삼을만한 스승’으로 기술한 것에서도 우계학통으로서의 연원성을 확인할 수 있다(金尙憲, 『淸陰集』 卷24, 〈行司諫院大司諫李公神道碑銘并序〉, “長游牛溪成先生門下 學有師法”).

君의 보호를 부탁한 遺教七臣의 한 사람으로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장녀서 申欽은 정계는 물론 학계 및 문단의 거장이었다. '淸江家學'은 여러 아들 중에서도 4자 명준을 통해 전승되는 한편으로 申欽→朴世采(신흠의 외손자)로 전해지면서 少論學風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²⁷⁾ 이명준의 정치·학문적 성향을 참작할 때, 조극선의 잠와문하 입문은 우계학통의 계승을 의미했다. 후일 조극선의 후손들이 정치적으로는 소론, 학문적으로는 우계학파를 표방한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조극선이 이명준에게 수학한 기간은 1609년 12월에서 1610년 10월까지 채 1년이 차지 않았고,²⁸⁾ 학습한 교재 또한 『唐音』·『詩家淵海』·『古詩』 등 초보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지만 공부의 목표가 과거에 맞춰져 있음은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 이명준은 문인들에게 필목 선물을 잊지 않는 다감한 스승이었고, 白日場 등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酒肉을 내리며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조극선에게 더욱 살가운 정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아들 이현기가 조정진에게 수학한 것도 한 몫을 했을 수도 있다.²⁹⁾

이명준의 관심과 격려 속에 조극선은 1610년 5월 충청감사 鄭曄의 주관하에 洪州에서 설행된 백일장에 응시하게 된다. 당시 세 시관이었던 홍주목사(金燾國)·덕산현감(李命俊)·성환찰방(人名未詳)은 조극선의 시를 우수작으로 선발했고, 그 결과 술과 지필묵을 선물로 받는 영예가 주어졌다. 이날 그는 '二上'의 점수를 얻어 입격했고, 장원은 賦를 지은 누군가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야곡연보』는 '居魁'라 하여 조극선이 장원 입격한 것처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의 확인이 어려운 감사 정엽의 찬사까지 첨언하여 실상을 흐리고 있다.³⁰⁾

수학 기간의 단기성에도 불구하고 이명준과의 학연은 조극선의 건문 및 교유관계 확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백일장을 주관했던 감사 정엽은 이명준과 우계문하의 동문이었다.³¹⁾ 비록 감사와 유생은 그 지위의 차이가 현격했지만 조극선은 정엽의 거동

27) 박병련, 「박세당 '虛文' 비판의 정치사상적 의미와 정치적 행동의 특성」, 『서계 박세당 연구』, 集文堂, 2006.
 28) 1610년 윤3월에는 이명준의 거취와 관련하여 작은 소동도 있었다. 이명준은 자신의 체차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20일 귀경길에 오르면서 조극선 등 몇몇 문인들에게 작별 선물로 필목을 증정한 일이 있었고, 다음날에야 오보임을 알고 관아로 복귀했다(趙克善, 『忍齋日錄』, 〈庚戌閏3月15日〉, 〈庚戌閏3月20日〉, 〈庚戌閏3月21日〉).
 29) 趙克善, 『忍齋日錄』, 〈庚戌9月16日〉(1610).
 30) 趙克善, 『治谷集』卷11, 附錄「年譜」〈庚戌〉, “守夢鄭公曄 爲本道監司 會道內儒生于洪陽 使之講述 先生方總尹 講夙興夜寐箴及敬齋箴 說義論理 不差本旨 又以古詩居魁 詞格典贍 守夢大加稱賞焉.”
 31) 栗谷·牛溪 양문에서 수학한 정엽은 인조조 영남남인의 영수 鄭經世의 비판적 牛栗認識을 전환시킨 인물로 거론될만큼 우유, 특히 牛溪學에 대한 계승의식이 강렬했다(朴世采, 『南溪集』卷57, 〈記少時所聞〉, “鄭愚伏經世晚與鄭守夢曄吳楸灘允謙相善 人有問牛栗二先生於鄭公者 答曰牛溪則吾所未知 栗谷則觀其著述 亦似不甚喫緊 然吾嘗與時晦汝益友 眞一世豪傑之士也 竊聞二公委已受學於牛栗 尊信甚篤 然則牛栗之賢 從可知也已”).

을 유심히 지켜보며 예비 관료로서의 각오를 다졌을 것이다. 아울러 이명준의 아들 李顯基와의 교유는 후일 조극선이 서울권으로까지 인적 관계망을 확대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

2. 서울행과 영덕행: 관계 강화 및 心法 수용을 위한 노력

1) 知識·文物觀光 그리고 교유망의 구축: 1611년의 서울행

1611년 2월 조극선은 서울행에 나섰다. 표면적 이유는 이명준에게 수학하는 데 있었지만 실제로는 과행을 겸한 다양한 목적을 지닌 걸음이었다. 2월 16일 서소문에서 이명준을 뵈 조극선은 이해 9월 환향하기까지 이명준가를 매우 자주 왕래하며 수학했다. 약 7개월의 留京은 수학을 통한 지식의 획득뿐만 아니라 都城의 인정과 물태를 파악하는 ‘觀光’의 나날이었다. 이현기의 안내를 받아 이루어진 ‘都城觀光’은 서울에 대한 지리적 감각을 익히고 都會의 문물을 체험하는 과정이었고, ‘科擧觀光’은 예비 거자로서의 선행 학습이었으며, ‘儒疏觀光’은 사림의 공론 표출과 집단 행동의 방식을 현장에서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 ① 2월 18일. 朴叔을 모시고 성균관 별시 마당에 들어가 이를 관광했다.³²⁾
- ② 2월 19일. 이현기와 함께 남대문 누상에 올랐고, 宣武祠도 관광했다. 나는 崔順源·崔振源·李訥이라는 사람을 만나 南關王廟를 유람하고 돌아왔다.³³⁾
- ③ 4월 10일.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 행위를 관광했다. [鄭仁弘이 晦齋·退溪를 힐끗은 탓에 諸生이 인홍을 공격한 것인데, 길에서 이 장면을 구경했다.]³⁴⁾

‘館儒上疏’가 특히 인상적이었던지 조극선은 이에 대한 연속 기사를 남기고 있다. 이것은 時事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32) 趙克善, 『忍齋日錄』, 〈辛亥2月18日〉(1611).

33) 趙克善, 『忍齋日錄』, 〈辛亥2月19日〉(1611).

34) 趙克善, 『忍齋日錄』, 〈辛亥4月10日〉(1611).

5월 13일. 이때 8도 유생이 모두 정인홍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충청좌도 유생은 지금 太平館에 모여 상소를 필사하는 중인데, 충청우도 유생만 오지 않았다.³⁵⁾

한편 조극선은 이명준을 뵈지 엿새째 되던 2월 22일부터 『史記』·『杜詩』·『黃山谷詩』 등을 수학했다. 詩史 공부에 집중한 것은 과거 일정이 임박했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학 여건은 열악함을 면치 못했다. 당시 이명준의 거처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이명준이 조카 이석기의 집에 머물 때는 그곳으로 가서 수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① 3월 7일. 去李(李碩基의 小字)의 집에서 수학했다. 선생이 이곳에 계셨기 때문이다.³⁶⁾
- ② 3월 13일. 또 거병의 집에서 수학했다.³⁷⁾

이 과정에서 조극선은 이명준의 형 李耆耆에게도 수학하여 청강가문과의 학연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생질 申翊聖이 지은 묘지명에 따르면, 이구준은 학문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품이 질박·온후하고 志行이 있어 사우간에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다.

조극선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된다. 2월 29일 조극선은 이명준의 갑작스런 부름에 달려갔고, 좌중에는 坡興守(李應順, 1570~1653)³⁸⁾가 함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명준은 조극선을 자식처럼 대하면서 대화를 혼담으로 이끌었는데, 사실상 파홍수에게 ‘擇婿’를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35) 趙克善, 『忍齋日錄』, 〈辛亥5月13日〉(1611).

36) 趙克善, 『忍齋日錄』, 〈辛亥3月7日〉(1611).

37) 趙克善, 『忍齋日錄』, 〈辛亥3月13日〉(1611).

38) 파홍수 이응순은 성종의 9남 益陽君 李懷의 증손이다. 조부는 長川正 壽麟, 부친은 陽城君 倫이다. 광해군 때는 절의를 지켰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정묘·병자호란 때 인조를 호종하여 坡陵君에 봉해졌다. 존고모부 任輔臣은 南孝溫의 외손자이고, 임보신의 외손자가 조극선의 洪城 백일장 때 시관이었던 金蓋國이다. 역시 존고모부인 李廷秀는 세조 때의 명신 李石亨의 손자로 李廷龜와는 재종간이다. 이정수의 외손자가 우계문하의 고제로서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吳允謙이다. 오윤겸의 정치학문적 지향은 吳達濟→道一→命恒으로 이어지면서 근기지역 소론 학풍의 중요한 갈래로 자리잡게 된다. 파홍수와 그의 선대는 종친이라 출사하지 못했지만, 그의 처 목천상씨가 당대의 문벌 청송심씨 좌의정 沈通源의 외손녀라는 점에서도 일가의 인척적 배경은 이처럼 매우 견고했던 것이다(박병련·정만조·이영춘·신병주·김학수, 『海州吳氏 楸灘家門을 통해 본 朝鮮後期 少論의 존재 양상』, 태학사, 2012).

서는 목천상씨를 매개로 한 이들 상호 간의 척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명종 때 영의정을 지낸 尙震의 손서가 李濟臣이고, 파흥수는 상진의 손자 尙蕃孫의 사위였다. 즉, 이명준은 외가 쪽으로 4촌의 척분을 지닌 파흥수에게 자신의 문인을 사위로 삼을 것을 권유한 것이다. 물론 이 혼사는 맺어지지 않았지만³⁹⁾ 이명준은 조극선을 자신의 ‘인척구성원’에 편입시켜 학연의 척연화를 꾀했던 것이고, 그 바탕에는 제자에 대한 강한 愛好意識이 깔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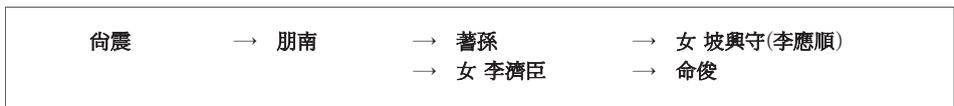


그림 1 목천상씨 尙震 가계도

이명준은 식량을 지원하면서까지⁴⁰⁾ 제자의 학업을 면려했고, 조극선은 이해 9월 4일 監試에 응시하게 된다. 하지만 난제를 만나 곤욕을 치르고 만다.

9월 4일, 掌樂館에서 열린 監試 시험장에 들어갔다. 鄭應聖·黃厚載 등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 나와 景明 모두 백지를 제출하였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⁴¹⁾

낙담 끝에 환가를 서둘렀고, 마침 이명준이 경기 敬差官에 임명되어 서울을 떠난 터라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9월 13일 덕산으로 돌아왔다. ‘백지제출[拖白]’의 굴욕에도 전후 7개월에 걸친 서울생활은 헛되지만은 않았다. 자신을 향한 스승의 애호만큼은 사무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9월 그믐, 서울에 있을 때 선생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도 컸다. 공부를 배우러 가는

39) 이 혼사가 맺어졌다면, 이명준은 처가 쪽으로 조극선과 5촌의 척분을 지니게 된다.

40) 趙克善, 『忍齋日錄』, 〈辛亥7月12日〉(1611), “先生遣人 賜正米一斗五升而召之 趨謁 始學杜詩[先生今以兵曹正郎受祿].”

41) 趙克善, 『忍齋日錄』, 〈辛亥9月4日〉(1611), “入掌樂館監試試所 鄭應聖·黃厚載等同坐 遇難題 吾與景鳴皆拖白 寧不愧乎.”

날의 경우, 아침에 가면 아침밥을 주셨고, 점심 때 가면 점심밥을 주셨으며, 저녁에 가면 저녁밥을 주셨다. 이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었다. 선생의 살림살이는 넉넉지 못했지만 7월 봉록의 대부분을 궁핍한 이에게 나눠주었다. 李丈(李顯基) 또한 나를 친애한 탓에 한 달여를 그 집에 머물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말과 사람을 제공하기까지 했으니, 感極할 따름이다.⁴²⁾

이것으로도 사은을 형용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한 달이 지난 10월 30일 일기에는 또 이런 감회를 적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엄숙한 ‘誓約’이었고, 이제 이명준은 조극선에게 부모와 임금에 준하는 존재로 자리잡았다.

10월 30일. 孝로써 부모를 섬기고, 忠로써 임금을 섬기며, 敬로써 스승을 섬겨야 하는데, 사람은 이 세 가지 섬김을 한결같이 해야 한다. 내가 남에게 덕을 베풀 것이 있다면 잊어버려야 하고, 남이 나에게 덕을 베풀 것이 있다면 잊어서는 안 되므로 이렇게 기록한다.⁴³⁾

落科의 상심은 師友의 인정으로 일정하게 치유되었고, 그 인정은 새로운 用心의 원동력이 되었다. 서울에서의 7개월은 학자·관료적 미래를 위한 교유의 틀을 짜는 시간이기도 했다. 李顯基·碩基·行進 등 청강가문의 구성원은 물론 李基祚(1595~1653)·鄭斗卿(1597~1673)⁴⁴⁾ 등과의 상견은 탄탄한 인적 자산으로 예비되어 갔다.

2) 師門慰勞와 淵源問答: 1616년의 영덕행

1612년 정월 이명준이 서원현감으로 부임하면서 사제는 4개월만에 재회하게 된다. 서원 현아에서 수령 접견 신청을 하는 조극선의 어조가 당당했던 것은 서울행에서

42) 趙克善, 『忍齋日錄』, 〈辛亥9月晦日〉(1611).

43) 趙克善, 『忍齋日錄』, 〈辛亥10月30日〉(1611).

44) 효종조에 예조관서를 지낸 李基祚는 吳允謙과 우계문하의 동문이자 후일 그의 매부가 되는 申應渠의 사위였고, 李恒福의 문인으로 효종~현종조에 문명을 크게 떨친 鄭斗卿[일기에서는 斗소으로 표기]은 역시 우계문인 鄭賜湖의 생질이었다. 이들 모두 牛溪淵源으로 후일 소론을 표방한 공통점이 있다.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분화하는 것은 숙종 초반이지만 두 계열은 이미 17세기 초반부터 각기 집단화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趙克善의 일기(『忍齋日錄』·『治谷日錄』)는 그 동향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특별하다.

확인한 믿음 때문이었고, 이명준 또한 이틀밤을 재우고 풍성한 선물까지 챙겨 후대해서 보냈다.

- ① 정월 24일. 이름을 알리고 縣衙로 들어가 선생을 뵈었다.
- ② 정월 25일. 저녁에 李顯基가 술을 가지고 객사로 내려왔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잤다.
- ③ 정월 26일. 작별 인사를 드리자 선생께서 白紙 한 권, 眞油 한 되, 精米 한 말, 中米 한 말, 造開 다섯 마리를 주셨다. 또 生雉 한 마리를 아버지께 보내셨다.⁴⁵⁾

이해 4월에는 증광 감시의 향시 시험장에서 시관의 임무를 띤 이명준을 다시 만났다. 조극선은 ‘代作’·‘代筆’의 갖은 수단에도 낙방의 고배를 마셨지만,⁴⁶⁾ 이명준은 책망은커녕 落幅紙를 챙겨 보내주며 상심하고 있을 제자를 격려했다.⁴⁷⁾

이로부터 1년이 지난 1613년 5월 조극선은 이명준이 서제 李耕俊의 옥사에 연좌되었다는 비보를 접하고⁴⁸⁾ 즉시 상경했다. ‘七庶獄’이 발발한 것이다. 朴應犀·沈友英·徐羊甲·李耕俊·朴致毅 등 명문가의 서자가 중심이 된 ‘七庶獄’은 중도에 탄로가 나서 혹독한 옥사로 종결되었다. 무엇보다 7서는 서얼 금고를 사회적 부조리로 규정하고 영창대군 李璣를 추대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축옥사를 재촉하는 역기능을 수반하고 말았다. 18세기 남인계 학자 李瀾은 ‘칠서옥’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나라의 법에 서자[庶孽]를 경계하여 顯職에 통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일곱 사람의 서자가 나라를 원망한 나머지 서로 모여서 도둑이 되었는데, 정승 朴淳의 아

45) 趙克善, 『忍齋日錄』, 〈壬子正月24~26日〉(1612).

46) 趙克善, 『忍齋日錄』, 〈壬子4月9日〉(1612), “入場中 世子入丈 兼移御增廣監試也 試官都事金大德·沃川郡守洪瑞翼及西原縣監李先生也 賦題棲綾梁木 詩題頽醉面 李斗陽·鄭應聖 亦同坐作詩 余使黃厚載寫”; 〈壬子4月11日〉(1612), “又入場中 疑題 孟子曰 君子之教 有如時雨化之者 何如 斯可謂如時雨化之歟 余請於李丈以製以寫”; 〈壬子4月14日〉(1612), “聞 先生出榜後乘舟范川 以往西原將拜謁 而往范川 又聞 先生已從高山李樂元氏家而歸 即返竹坊 吾輩盡爲落榜 惟李斗陽得參.”

47) 趙克善, 『忍齋日錄』, 〈壬子4月24日〉(1612), “聞鄭宣傳雲龍氏 得謁先生于沔川 先生付送以吾疑心落幅紙 而紙在朴挺芝氏家云 往見持來.”

48) 趙克善, 『忍齋日錄』, 〈癸丑5月30日〉(1613), “余以潛寓李先生 坐於庶弟死於逆招 將被禍 欲往慰 與從兄發程上京 點心于新禮院 宿于新旅幕.”

들 朴應犀와 沈友英·徐羊甲·李耕俊·朴致毅 등이 있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이름을 잊었으나, 모두 卿相들의 아들이었다. 이에 鳥嶺 아래서 재물을 검탈하자, 뒤를 쫓아서 응서를 붙잡았는데, 형벌을 기다릴 것 없이 날날이 자백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 장차 큰 일을 도모코자 하였다.” 하고는 그 檄文을 외었으니, 곧 이경준의 필적이었고, 경준은 곧 清江 濟臣의 아들이었으며, 그 供辭에는 大君 璣를 추대한다는 말이 있었다. 이때에 永昌大君의 獄事가 있어 그 무리들이 모두 체포되었으나, 致毅만은 도망쳐 붙잡지 못하였다.⁴⁹⁾

이 과정에서 이경준은 격문의 작성자로 지목되어 혹형을 당했으나 끝내 자복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李耕俊에게 압슬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낙형을 가해도 자복하지 않자, 또 더 형추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경준은 몸이 허약한 자로서 정강이에도 살이 붙어 있지 않아 訊杖을 감당치도 못할 정도였는데 가장 혹독하게 형신을 당하면서도 끝내 말을 달리하지 않았다.]⁵⁰⁾

이경준이 불복한 채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명준의 연좌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에 이명준은 옥사의 와중에도 조극선에게 교훈이 되는 ‘말[言]’과 ‘먹[墨]’을 내리고 ‘술[酒]’까지 대접하는 등 동요하는 기색을 일체 보이지 않았다.⁵¹⁾

하지만 연좌를 避免은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 옥사는 연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명준은 경상도 해읍인 영덕 유배에 처해지고, 매부 閔有慶 또한 홍문관 교리에서 체차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명준의 영덕 유배가 확정된 것은 1613년 6월 17일이지만, 『忍齋日錄』에 따르면 배소를 향해 출발한 날자는 약 10일 뒤인 6월 26일이었다. 이후 그는 1623년 인조반정으로 해배·등용되기까지 꼬박 10년을 罪籍에 묶이게 된다. 이명준의 유배는 조극선에 있어 수학의 한시적 단절을 의미했다.⁵²⁾ 이에 조극선은 수시로 이명준의 안부를

49) 李演, 『星湖僿說』 卷17, 「人事門」, 〈七庶孽〉.

50) 『光海君日記』, 〈光海君 5年 5月 6日(癸亥)〉.

51) 趙克善, 『忍齋日錄』, 〈癸丑6月6〉(1613), “夕食後 復往西小門內 辭于先生 先生贈以言賜以墨飲以酒 …… 既昏辭歸 蓋李耕俊終始不伏而死 故延坐之禍 將得免也.”

52) 1614년 3월 20일 조극선은 중형으로부터 李濟臣의 『清江集』을 차람하였는데, 이는 이명준에 대한 사승의식과

탐문하였지만 들려오는 것은 短信뿐이라 조바심을 태우는 가운데 때로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으며, 이명준의 생계가 어렵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를 통해 구호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 ① 6월 30일. 고산으로 가서 용계를 뵈었다. …… 渾이 영덕에 계시는 잠와 선생께서 평안하시다는 기별을 들었다고 한다.⁵³⁾
- ② 11월 9일. 아버지께서 高山·別山 등 여러 곳으로 가셨는데, 대구부사 李燾 씨가 마침 별산에 왔다. 우리들은 잠와 선생께 보낼 편지를 썼고, 아버지께서 대구부사에게 영덕으로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려고 했다.⁵⁴⁾
- ③ 7월 3일. 아버지께서 李丈과 논의하여 잠와 선생의 궁핍함을 구호하자는 취지의 통문을 향중에 돌렸다.⁵⁵⁾

전술한 바와 같이 조극선은 이명준 방문과 관련하여 이영원과 약간의 갈등을 빚은 뒤인 1616년 9월 25일 拜門行에 오르게 된다.⁵⁶⁾ 조극선이 목천·충주·진천·음성·단양·청풍·영주·안동·청송을 거쳐 가시울타리(荊籬)에 둘러싸인 이명준의 영덕 적소에 도착한 것은 10월 14일이었다.⁵⁷⁾

어느새 백발이 되어 부인의 병환까지 돌봐야 하는 이명준의 초췌한 모습에 辛酸함을 가눌 수 없었지만 幅巾 차림으로 학도를 모아 강학하는 면모에서 쇠퇴하지 않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趙克善, 『忍齋日錄』〈甲寅3月20日〉). 조극선이 열답한 『淸江集』은 1610년 스승 李命俊이 덕산현감 재임 시에 편집·간행한 初刊本으로 李恒福의 서문과 申欽(이제신의 사위)의 발문이 실려 있다(申欽, 『象村稿』卷36, 〈淸江集跋〉, “文之付劄則凡三卷 驚城相國既爲之序 而公之胤德山倅命俊氏 謂欽知公 不唯甥舅之好 固要一言而跋之”).

53) 趙克善, 『忍齋日錄』, 〈乙卯6月30日〉(1615).

54) 趙克善, 『忍齋日錄』, 〈乙卯11月10日〉(1615).

55) 趙克善, 『忍齋日錄』, 〈丙辰7月3日〉(1616).

56) 스승의 적소 방문을 위한 拜門活動은 일반적 추세로 볼 수 있다. 예컨대, 宋時烈의 문인 全克和의 경우는 스승이 덕원에서 장기로 이배되던 1675년 5월에서 거제에서 해배되던 1680년 5월까지 만 5년 동안 적소에서 스승을 시종하였다(『聯芳集』卷6, 『洛浦遺稿』, 〈尤菴先生長壽謫所日記〉, 〈巨濟謫所日記略〉).

57) 7庶獄 및 癸丑獄事의 여파로 영덕·영해지역에 유배된 대표적 인물로는 이명준 외에 徐溶이 있다. 서성은 무안박씨·영양남씨·대흥백씨의 합거촌인 영해 元邱里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朴璿(임란공신 朴毅長의 아들) 등 지역 사족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19세기 후반 박선의 정자 景濂亭 중수 시 記文을 찬술한 영해부사 徐綸輔는 徐溶의 8세손이다. 같은 지역에서 유배 생활을 했음에도 이명준과 서성 사이의 교류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조극선은 영덕으로 오는 길에 서성의 노복을 만난 사실을 일기에 적고 있다(趙克善, 『忍齋日錄』, 〈丙辰10月12日〉(1616), “夕投叅城村家寄宿 主人乃丹陽謫居徐知事溶之老僕也 疑我來自洛下 垂泣訊京報 盖聞其主父以儒生上疏 又將爲遠竄也矣”).

師道를 확인하고서는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문안 예법을 마친 조극선이 평소 애용하던 詩賦의 품평을 요청하는 것으로써 3년간 단절되었던 학문적 수수 행위도 재개되었다.

10월 14일, 선생 문하에서 수업하는 李鍾德·白興胤이란 사람이 있었다. 뜰 앞 초당이 학도들이 수업하는 곳인데, 마침 모두 흩어지고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또 객지 출신의 洪海龍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아직 총각인 그의 아들 또한 곁에 끼어 강의를 들었다.…… 선생께서는 늘 幅巾을 쓰고 매일 문생들과 강론하는 것을 본무로 삼고 계셨다.…… 선생께서 내가 지은 부와 시문을 보시고는, 문장은 韓愈와 柳宗元, 시는 蘇軾과 黃庭堅을 배울 것을 권장하시되, 그 순서는 황정건과 한유를 우선하고, 소식과 유중원은 그 뒤로 하라고 하셨다.⁵⁸⁾

이 과정에서 조극선은 작은 충격에 빠져든다. 그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李顯基의 문예가 크게 진보한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상황을 ‘刮目相對’로 표현하고 있지만 행간에 담긴 어조에는 일시적 ‘충격’을 넘어 ‘두려움’ 내지 ‘시샘’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10월 14일, 선생께서 顯基가 지은 시문을 내게 보여주라 하셨는데, 詩語가 樂府·左傳에 근본을 두어 팔목상대할 만했고, 예전의 지리멸렬했던 수준과는 완전히 판판이었다.⁵⁹⁾

10월 14일에서 18일까지 닷새를 머무르는 동안 두 사제간의 학문적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종일 作文을 토론하는가 하면 심중에 두고 있던 관심사를 질문기도 했다. 成渾과 李珥의 우열을 묻고 답한 ‘牛栗優劣問答’이 바로 그것이다. 이 질문은 조극선 자신의 淵源性과 직결된 것인 바, 한 번은 짚어야 할 緊要處였다. 이명준의 대답은 신중했지만 분명했다.

58) 趙克善, 『忍齋日錄』, 〈丙辰10月14日〉(1616), “有李鍾德·白興胤受業門下者 庭前草堂 學徒所居而會皆散去 惟二人在 又有客地產洪海龍 而其子總角亦廁于講席矣 …… 先生常戴幅巾 日與門生講論爲務 …… 先生既見余所賦詩文 文勸 韓柳 詩勸蘇黃 先黃韓而後蘇柳.”

59) 趙克善, 『忍齋日錄』, 〈丙辰10月14日〉(1616), “仍令顯基出示所製詩賦 語本樂府·左傳 刮目相對 殊非前日滅裂也.”

10월 16일. 내가 어찌 함부로 논할 수 있겠는가마는 율곡이 우계보다 어질다고 하는 이들은 율곡문학에서 배출된 사람들이고, 우계가 율곡보다 어질다고 하는 이는 우계문인이다. 내 일찍이 두 선생을 지켜 본 것으로 말하자면, 서로 道를 논한 글에 있어 논의의 귀결은 모두 율곡에게서 이루어졌다. 다만, 당시 율곡이 교유하며 도를 논한 이는 우계 한 사람뿐이다. 불행히 율곡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우계의 학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독실해졌으니 어찌 極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겠는가?⁶⁰⁾

우선 그는 평가에 있어 문과적 주관성을 경계하는 가운데 일단 이이의 학문과 입론에 우월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생존해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즉, 이명준은 노년에까지 독실함을 유지했던 성혼의 학문이 더 높은 경지(極地)에 도달하였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완성자’는 성혼이라는 것이 이명준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조극선은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수궁의 뜻으로 읽힌다.⁶¹⁾

한편 조극선은 이명준과의 대화에서 ‘주자학자의 巫覡 용인’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사연은 대략 이렇다. 적소에서 이명준을 시봉하던 부인 의성 김씨가 난치의 병에 걸리자 巫覡的 처방을 통해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는 집안에서 巫禱를 행해도 이를 금지시킬 수 없는 심정을 조극선에게 토로한 것이다.⁶²⁾ 국가의 통치이념인 주자학을 신봉하는 유학자, 그것도 국가경영의 일선에 위치했던 엘리트 문신조차도 금지시킬 수 없었던 ‘巫覡’의 실상을 조극선 일기는 이렇듯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영덕행의 가장 큰 결실은 10월 18일 작별 인사를 할 때 나타났다. 이명준은 조극선의 학업을 깊이 염려했던 것 같다. 언제 해배될지 모를 자신의 처지를 감안할 때 더욱

60) 趙克善, 『忍齋日錄』, 〈丙辰10월16日〉(1616), “蓋謂栗谷賢於牛溪者 出栗谷門者 謂牛溪賢於栗谷者 牛溪門者 余嘗觀二賢 相與論道書 歸一之論 皆定於栗谷 然當世栗谷所與交遊論道者 只牛溪一人而已 不幸栗谷早世 牛溪學問老而彌篤 豈不到得極地.”

61) ‘牛栗優劣論’으로 대변되는 인물론은 조극선 일기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이런 논의는 3師, 즉 李命俊·朴知誠·趙翼과 의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權近·吉再·金安國·李彥迪·李滉·徐敬德·盧守愼·鄭述·張顯光·奇自獻·黃愼·吳允謙·鄭擘·李貴·申欽·李德馨·張維·趙綱 등 전시대와 동시대의 인물을 망라한다. 17세기 서인계의 ‘論人文化’를 압축하고 있는 이 人物論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62) 趙克善, 『忍齋日錄』, 〈丙辰10월17日〉(1616), “昏侍話于月下 聞巫覡聲鼓于邑里 仍說巫覡之弊 先生曰 余平生巫覡等事 絕於言議 余南來之時 小兒路得指銀眞珠 以遺阿女 而余頗不悟 至配所 室人得疾甚重 不能言語 忽自起求德啓 取指銀眞珠 使之祈禱大怪之 召 日者卜之曰 此是引鬼之物 宜速祈禱 可得不死復初 則當在爲歲之春 沉綿三年 到今春方痊 如日者說 自是厥後 巫禱事 行於家 吾所不能禁也.”

절박함이 컸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조극선의 潛治(朴知誠)·浦渚(趙翼) 문하 입문을 적극 알선하며 추천서를 써주었다.

10월 17일, 작별 인사를 드리자 선생께서 수찬 趙翼과 세마 知誠의 사람됨을 고려할 때, 그 문하에서 遊學할만 하다고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전할 편지를 써 주셨다.⁶³⁾

이명준은 문인 조극선을 자신의 범주 속에 가두지 않고 진로를 주선하면서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박지계와 조익은 17세기 초중반 서인 기호학과를 대표하는 학자로 부상한 석학들이고, 특히 박지계는 인조반정 이후 金長生·張顯光과 함께 산림으로 징소되어⁶⁴⁾ 元宗追崇論의 이론적 명분을 제시한 예학자였다.⁶⁵⁾

이명준이 박지계·조익에게 써준 추천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 편지는 各人 앞으로 별개로 작성되었는데, 이명준의 『潛窩遺稿』를 통해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潛治 朴知誠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그곳으로 가는 趙生 克善은 제가 오래 전부터 가르치던 문도입니다. 형의 高善함을 경모하여 폐백을 갖춰 문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람됨이 학문을 좋아하고 문한 또한 갖추고 있으니, 俗輩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⁶⁶⁾

② 浦渚 趙翼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그곳으로 가는 조생 극선은 제가 오래 전부터 애중히 여긴 사람인데, 형의 高義를 사모하여 폐백을 갖추어 문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시속의 무리와는 달리 好學하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정진하여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인도하여 개발시켜 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⁶⁷⁾

63) 趙克善, 『忍齋日錄』, 〈丙辰10月18日〉(1616), “先生言趙修撰翼·朴洗馬知誠之爲人 可以游學于其門 修書以通.”

64) 禹仁秀,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1999.

65) 李迎春, 『潛治 朴知誠의 禮學과 元宗追崇論』, 『清溪私學』 7, 1990; 李成茂·鄭萬祚 外,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66) 李命俊, 『潛窩遺稿』 卷2, 〈與朴潛治知誠書〉, “就中今進趙生克善 則僕舊愛 慕兄高善 束脩以造 爲人好學而有文 幸勿以俗輩待之.”

67) 李命俊, 『潛窩遺稿』 卷2, 〈與趙浦渚翼書〉, “此去趙生克善 卽僕舊愛 慕兄高義 閒住野庄 束脩以造門下 此非如俗輩爲人好學樂善 其進而不止也 幸須十分猶誨 以期開發也.”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의는 동일하다. 조극선은 자신이 보증하는 好學의 선비이므로 잘 교육하여 성취시켜 줄 것을 당부하는데 요점이 있다. 당시의 문자 관행상 편지는 봉인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조극선은 그 내용을 몰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조극선의 이른바 ‘三師(李命俊·朴知誠·趙翼)’는 ‘第一師’ 李命俊의 알선과 배려를 바탕으로 약간의 시기적 차이를 두고 그 윤곽이 잡혀갔던 것이다. 박지계·조익과의 학연은 이명준과의 사승관계의 확장이었고, 문파적 배타성이 심화되던 17세기 조선의 학계에서 이런 소통적 구조는 매우 드문 사례였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극선은 이명준의 권유 및 추천에도 한동안 박지계·조익을 찾지 않았다. 그가 박지계의 잠야문하에 입문한 것은 1618년 윤4월 22일이고, 조익의 포저문하에 입문한 것이 1618년 11월 2일이다. 이는 두 문하에 나아가기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을 넘어서는 기간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포저문하에 입문하기 전에 조익의 품성·저술·독서법 등을 면밀하게 수렴·분석한 것을 고려할 때,⁶⁸⁾ 일정한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음이 분명했다. 즉, ‘碩學’에 대한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두 해 동안이나 그를 긴장시키면서 입문의 결단을 억압했던 것이다. 요컨대, 단편적이고 박제화된 사실을 일률적 방식으로 수록한 『年譜』 또는 ‘行狀傳記類’의 입문기와 개인의 심리 상태까지 은연 중에 표출하고 있는 조극선 일기가 담아내고 있는 ‘入門記事’의 자료적 결은 이렇게 달랐다.

3. 인조반정과 재회: 學問·經世談論과 관계의 진전

1) 學問·經世談論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서인정권이 수립되었다. 광해군의 축출과 대북정권의 패망은 광해군 때 절의를 세운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용으로 이어졌다. 인조는 1623년 3월 16일 李元翼을 영의정, 李廷龜를 예조판서, 吳允謙을 대사헌에 임명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명준과 김장생은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이

68) 趙克善, 『忍齋日錄』, 〈丙辰11月20日〉(1616), 〈戊午正月29日〉(1618), 〈戊午4月29日〉(1618), 〈戊午8月19日〉(1618), 〈戊午9月4日〉(1618), 〈戊午9月6日〉(1618).

명준에게 憲職 발령은 10년 謫居를 보상받는 화려한 복귀였다. 물론 이 임용은 하루 전인 3월 15일 이조판서에 임명된 자형 신희이 주관한 인사라는 점에서 일정한 혐의는 있었지만 『인조실록』은 행의와 경륜에 따른 인사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날의 인사에는 우계문인의 등용이 두드러졌는데, 오윤겸과 이명준이 대표적인 인사들이었다. 『인조실록』에 실린 이들의 인사평은 아래와 같다.

- ① 윤겸은 그 사람됨이 단증하고 온아하였다. 일찍부터 咸渾의 문하에 수학하여 性理學에 전심하였는데, 혼이 자주 칭찬하였다. 또 일찍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는데 고상한 지조를 지녀 異國人 또한 존경하였다.
- ② 명준은 사람됨이 강직하고 몸가짐이 청백하였다. 계축옥사 때 庶弟의 옥사에 연좌되어 영덕에 유배되었다. 이항복이 대비의 폐위를 반대하다가 북변에 유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상소를 지어 항론하였는데, 그 말이 몹시 통절하여 수령이 감히 위에 올리지 못하였고 듣는 자는 모두 진땀을 흘렸다. 이에 이르러 사헌부의 직책으로 불러들였다.⁶⁹⁾

인조는 이명준의 강직·청렴·절개를 높이 평가하여 삼사의 요직인 장령에 임명했던 것이다. 해배 이후 두 사제가 재회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당초 조극선이 서울행을 예정한 것은 1623년 4월이었다. 하지만 상경 채비를 서두르던 중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중형 조종선만 拜門行에 나섰다. 7일간 서울에 머물면서 두 차례 이명준을 만난 조종선의 전언은 조극선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지만 이명준의 청렴을 높이 샀던 조정의 인사만큼은 세론에 부합되었음이 입증되었다.

5월 10일. 잠와 선생께서 잠시도 거처할 곳이 없어 집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계셨다. 빈객이 문전을 가득 메워 중형은 서울에 머무는 7일 동안 고작 두 번 선생님의 안면을 뵈었을 뿐 조용하게 대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내가 서울로 가지 못한 것은 차라리 다행이며, 후회는 없다.⁷⁰⁾

69)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3월 16일(병오).

70) 趙克善, 『忍齋日錄』, 〈癸亥5月10日〉(1623), “潛窩先生姑無處所 與群族同住 賓客填門 二兄留京中七日 僅得再奉顏面 而未得接話從容 余之不往 實幸也 無悔.”

그러나 영덕 문인들이 이명준을 예대한다는 소식은 큰 위안이 되었지만⁷¹⁾ 정치적 시련 속에서 총명을 잃어가는 스승에 대한 世評에는 침울한 심사를 감추지 못했다.⁷²⁾

5월 20일. (이귀가 또 말하기를) “우리들 가운데 氣骨로 치자면 李某(李命俊)만한 이가 없는데, 요사이 이모를 보니 오랜 기간 적소에 있었던 탓에 정신이 어느새 쇠약 해져 사무 처리에 허술한 데가 많아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고 한다. 중형이 자신이 본 것을 말하였는데, 과연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맞았다. 이는 선생께서 오래도록 공약하게 지내신 나머지 魂이 상한 탓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듣고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⁷³⁾

이에 이명준에 대한 그리움 또한 더욱 사무쳤고, 9월 중순께는 상경 일정도 잡았지만 이명준의 경기 및 영남 암행어사 출행으로 인해 이 계획 또한 무산되고 만다.

9월 12일. 내가 아직까지 잠와 선생을 뵙지 못해 오매불망하는 마음뿐이다.…… 잠와 선생께서 과연 암행어사의 명을 받아 出行하셨으니 나의 서울 걸음 또한 멈추어야 할 것 같아 매우 한탄스럽다.⁷⁴⁾

이런 상황에서 조극선은 1623년 12월 17일자 ‘都目政事’에서 이명준이 충청감사에 임명된 사실을 전해 듣고⁷⁵⁾ 꿈속에서까지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정월 15일. 黃厚載가 또 말하기를, “이 선생께서 지금 가선대부에 가지되어 오늘 서

71) 趙克善, 『忍齋日錄』, 〈癸亥5月10日〉(1623), “嶺南白興胤, 陪先生相室行次 今月初三日到京云 可嘉其志.”

72) 이명준의 쇠약상을 우려했던 李貴는 이명준의 牛溪門下 동문이다. 후일 이명준은 이귀가 정치적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거취를 걸고 그를 ‘竭誠憂國’의 표본으로 일컬으며 변호한 것에서 보듯 두 사람은 애착어린 관계에 있었다(李命俊, 『潛窩遺稿』 卷2, 〈論鄭大鵬疏〉, “功高當世 竭誠憂國 無如李貴 而至於此論見非於國人 况人微性愚而妄論大禮 則濫濫甚矣 豈可徒以言者 而不察其言之當否 其人之吉凶 任其跳踉而置之乎 惡其人之非倫 倣論其人之地望 卽臺閣論事之恒例 而 殿下不諒臣論大鵬之意 以不顧事理欲罪言者爲目 不顧事理 欲罪言者之罪 臣實當之 請命罷斥臣職”).

73) 趙克善, 『忍齋日錄』, 〈癸亥5月20日〉(1623), “又言 吾儕中氣骨莫如李某 今見李某 久在竄謫 精神頓衰 事多虛疎 甚可惜也 二兄因言所見之事 亦果差誤 得非先生久在窮約 因以衰魄歎 聞來 不勝感歎.”

74) 趙克善, 『忍齋日錄』, 〈癸亥9月12日〉(1623), “余至今未能趨拜李潛窩先生 寤寐未忘于心.”; 〈癸亥9月13日〉, “果以暗行御史奉命 已出矣 余之京行 將又停矣 可歎之甚.”

75) 趙克善, 『洽谷日錄』, 〈甲子正月7日〉(1624), “中道得聞潛窩先生自嶺南 是日入城 蓋於臘月十七日政 先生除此道方伯云.”

을에서 말에 올라 本道(忠淸道)를 향해 내려오신다.”고 했다. 이 말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다. 내 지 금껏 선생을 뵙지 못해 사모하는 마음이 진실로 간절하던 차, 지난 7일 새벽에는 어느 곳에 있는 물가의 누각에서 선생을 뵙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깬 뒤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때는 선생께서 우리 집에 오셨음에 모시고 조용히 토론을 했다. 이날 낮에 奎得雲이 와서 선생께서 入京하셨다는 기별을 전해 왔다. 지난 밤 꿈에 내가 선생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말을 타고 맞으러 가려했는데, 오늘 황생(黃厚載)의 건갈이 이와 같으니 정성의 소치는 이와 같은 법이다.⁷⁶⁾

이명준의 충청감사 임명은 사실이었고, 마침내 조극선은 1624년 2월 24일 공주 廣程店에서 9년만에 師顏을 접하고 예를 갖추었다. 이명준은 조극선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몇몇 동행자가 있었지만 유독 그만 감사가 목을 舍館에 머무르게 했다. 이명준은 조극선의 진로 문제를 첫 번째 화두로 삼았다. 그것은 염려였다. 여러 차례 관직에 의망되었음에도 낙점되지 못한 사연을 물은 다음 과거에 합격하면 더욱 좋겠지만 ‘南行登仕’도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진로를 지도했다. 조극선이 본심을 숨기고 벼슬에 뜻이 없는 것처럼 답하자 부모를 생각하라는 우회적인 답변으로써 출사를 권유했다.⁷⁷⁾

어느새 조극선에게 질문의 순서가 돌아왔다. 신임 감사에 대한 도민의 여망이 큰데 어떻게 道政을 수행할 것인지를 묻자 이미 민폐개선을 위해 선포한 ‘五條懸案’을 환기시키면서 조극선으로 하여금 그것을 조목조목 거론해 볼 것을 面命하기도 했다.⁷⁸⁾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서 조극선이 나름의 ‘시폐개선안’을 제안하자 이명준은 즉석에서

76)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正月15日〉(1624), “且言李先生 今加嘉善 自京今日上馬 向本道下來 蓋未知此說從何聞知也 若然 則喜幸實深 且余至今未拜于先生函丈之席 尋常嚮慕之誠固已切矣 初七日曉 余夢拜先生于某處水上樓閣中 既覺又夢 則先生到吾家 奉坐甚從容討論 是日之午 奎得雲來言先生入京之奇 去夜之夢 余聞先生之至 顛倒跨馬 將往逆之 今日黃生之報如是 則誠之所格 蓋有如此.”

77)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正月24日〉(1624), “定舍館 三子者退 先生留余 入房叙話 先生始見余 乃謂余曰 汝頻入望 每參副望 何也 然會參首望矣 蓋余初入獻陵參奉末望 而又再擬齋郎 歲後又擬教官望 皆爲副望 故有是言也 夜先生又曰 汝若等第 何幸如之 南行登仕 亦是好事 克善乃陳己志 以告不樂爲仕之由 先生曰 汝意固然也 然於老親之心 喜悅者爲如何哉 克善問曰 先生將何以治民 一道民庶望先生如望父母 彼所期待甚重 實難充其所願也 先生曰 吾何以爲民父母 然吾自到界之日 已申令除民弊者 有五事 曰爲克善 歷舉五條 皆大端民瘼也 克善亦自陳時弊凡數事 先生皆聽納 或即召色吏舉燭 行文書施令.”

78)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正月24日〉(1624), “克善問曰 先生將何以治民 一道民庶望先生如望父母 彼所期待甚重 實難充其所願也 先生曰 吾何以爲民父母 然吾自到界之日 已申令除民弊者 有五事 曰爲克善 歷舉五條 皆大端民瘼也.”

色吏를 불러 이를 공문화하여 시행케하는 파격성을 보였다.79) 그것은 신뢰의 표현이었고, 그 신뢰는 이어지는 대화에서 더욱 두터워졌다.

정월 24일, 본도의 수령 官案을 펼쳐 놓고 한 사람씩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賢否를 물으시자 극선은 경건하게 사실대로 대답했다. 선생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만약 너와 같은 사람 열 사람만 있다면 내가 감사 노릇하면서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다.80)

사제간의 대화는 이튿날에도 첫날과 비슷한 논조를 유지했다. 이명준은 조익이 조극선을 항상 칭찬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박지계와의 친절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일찍이 자신이 조극선에게 알선한 스승이었던만큼 신경이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조극선은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甚親]’는 말로써 이명준의 염려를 덜어주었다.81) 이윽고 사제의 대화는 좀 더 무거운 쪽으로 옮겨갔다. 이명준은 반정 이후 전격적으로 추진된 ‘元宗追崇論’에서 박지계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가운데 박지계를 ‘사심없는 사람’으로까지 호평했다.82) 이것은 원종추숭 관련 박지계의 예론이 정치적 이해 득실과 무관한 학문적 소신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날의 대화는 여기서 그쳤지만 원종추숭론과 관련된 예학 담론은 찬반 논쟁이 격화될수록 이명준과 조극선 사이의 현안이자 핵심 화두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기로 한다.

이명준은 박지계의 예론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인 반면 광해군 처우론, 즉 ‘數罪論’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광해군의 죄상을 일일이 들어 논죄하지는 數罪論은 조익이 발론한 것이었고, 조극선이 박지계 또한 여기에 동조한다고 언급하자 이명준은 이들의 주장을 몰정을 모르는 ‘愚昧之論’으로 일축했다.83) 같은 사

79)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正月24日〉(1624), “克善亦自陳時弊凡數事 先生皆聽納 或即召色吏舉燭 行文書施令.”

80)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正月24日〉(1624), “又以本道守令官案 指點問賢否 克善敬對以實 先生喜曰 若得如汝者十人 吾於監司之任何有.”

81)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正月25日〉(1624), “先生謂克善曰 趙飛卿每相見 必稱汝汝 朴仁之亦相切如是否 余對曰 甚親.”

82)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正月25日〉(1624), “因語及國禮 爲定遠君立廟事 先生曰 朴持平所論 與皇明陳某所見暗合 蓋以余所見 則朴持平議論甚是 然余素不知禮 以余尋常所見附會是事 若得諂媚上意之名 雖死 難雪其耻 故不敢以常所見自是也 朴持平則以山林隱士 自抱至公無私之心 所言有何嫌也.”

83)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正月25日〉(1624), “又曰 飛卿以爲廢主 當數其罪而罪之 其論過矣 余曰 朴持平之意亦如是也 先生曰 是皆愚昧之論.”

안에 대해 동론과 이론으로 엇갈리는 三師의 주장을 조극선은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떤 주장을 동조 또는 수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을까? 조극선 일기의 독특한 興味素도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論人’을 주제로 다시 이어졌다. 대상은 류성룡의 고제로 인조 정권에서 영남남인의 영수로 대두되고 있었던 정경세, 반정직후 승용산림의 기치하에 김장생·박지계와 함께 징소된 장현광이었다.⁸⁴⁾ 조극선이 정경세의 사람됨을 묻자 이명준은 자신이 겪은 실례, 즉 廢東宮(광해군의 세자) 주벌 논의를 예로 들어 평론을 가한다. 이명준은 폐동궁 처벌 논의에 정경세와 함께 참여하여 인조 및 제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誅殺不可論’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정경세는 폐동궁을 주살할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 겉으로는 주살론에 동조하면서 이명준을 ‘立議領袖’로 몰아부쳐 곤경에 빠트렸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준은 정경세를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으로 혹평했던 것이다.⁸⁵⁾ 그리고 장현광에 대해서는 비록 전문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품 또한 그다지 고매한 것도 아니다’고 하며 조소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⁸⁶⁾ 산림 징소의 중대 명분이 학문과 인품인데, 이명준은 인품을 부정함으로써 장현광 징소의 합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⁸⁷⁾ 정경세·장현광에 대한 논평은 사제간 인물 담론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조극선의 ‘人物觀’의 정립에 영향을 미쳤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틀간 사제가 나눈 대화는 민폐개선 및 수령의 현부와 관련된 道政, 元宗追崇論이라는 국가 전례, 정경세·장현광 등 거물급 인물에 대한 평론 등 그 수준이 매우 격상되어 있다. 詩賦를 펼쳐놓고 善否를 가늠하던 1616년 영덕행 당시의 상황과는 판이했다. 이것은 30대에 접어든 조극선의 학식과 경륜의 성장의 결과였고, 이명준 또한 그를 학문·경세담론의 대상으로 삼아 훈도·격려하는 한편으로 조언·자문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했던 것이다. 조극선에게 있어 1624년은 이전까

84) 장현광의 생애·학문 및 旅軒學派에 대해서는 김학수, 앞의 논문 참조.

85)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正月25日〉(1624), “余又問愚伏鄭經世之爲人 曰 奸詐不足道也 且曰 廢東宮議誅時 余與某某輩當初立異 鄭經世則心知其不可殺 而外從當殺之論 後來頗目余爲立異之領袖 可歎.”

86)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正月25日〉(1624), “然則張旅軒何如人也 曰以余所聞 其人品亦非甚高.”

87) 장현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山林無效論으로까지 발전되었다(趙克善, 『治谷日錄』 〈甲子4月5日〉(1624), “沈生曰 張旅軒有若堅臥者 今乃來仕于朝 未知其何心也 余曰 然則仕何職 先生曰 由掌令·執義陞堂上爲戶曹叅議 張公加資辭職 則上答曰 將大用 勿辭云矣 蓋旅軒屢徵不來 世人詆訾朝政者 皆曰 我國獨有張旅軒一人 旅軒知時事不好 故不來也 今則旅軒亦起矣 嘲笑詆訾者 蓋無辭矣 然而國事實無治效 舉一國賢人君子 無遺類 盡爲見用 而猶不平治大可歎也.”).

지의 稚氣를 일소하고 독자적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儒者로 성장하는 분기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1624년부터 1630년까지 약 7년에 걸친 사제 교유는 인적 연계망의 확충에도 비약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시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인조반정 이후 그가 상견 또는 교유했던 申欽·李安訥·李春元·朴東善·辛慶晉·尹昕·元斗杓·金槃·李景稷·宋象仁·閔有慶·趙廷虎·沈光泗·尹煌·吳達天 등은 이명준과의 관계에 바탕하여 맺어진 인적 인프라였다.⁸⁸⁾ 예컨대, 이명준의 차녀서였던 沈光泗의 경우 大駕 수행 시 상견한 적이 있었지만 인적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 호서감영에서 심광사를 다시 만나면서 그가 이명준의 사위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때 이명준은 조극선에게 심광사와의 동유를 주선하며 교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⁸⁹⁾

2) 同門에 대한 인식의 확대: ‘潛窩門派’의 실제

한편 조극선은 이명준의 문하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잠와문하’ 동문의 존재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잠와문인은 그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서울을 비롯하여 각 도에 분포했고, 학자·관료로서 현달한 인물도 적지 않았다. 지방에까지 분포했던 것은 德山·盈德과 같이 임지 또는 배소로 와서 請業한 인사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덕산 출신으로는 趙克善·趙從善·李紘·全海龍, 영덕 유배지에서 양성한 문인으로는 李種德·白興胤·洪海龍⁹⁰⁾ 등이 있으며, 서울 출신으로는 李時翼⁹¹⁾·李行健을 들 수 있다. 이행건은 이명준의 형 李壽俊의 손자였음에도 조극선은 그를 ‘從孫’이 아닌 ‘潛窩門人’으로 기술하고 있다.⁹²⁾

88) 이들의 대부분은 이명준을 뵈는 과정에서 相見·交遊한 경우에 속한다. 특히 申欽·李安訥·李春元·朴東善·辛慶晉·尹昕·元斗杓·金槃·李景稷 등은 이명준의 매개적 역할 없이 조극선이 直交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었던 거물들이다. 元斗杓·金槃을 제외한 인사들의 상당수가 후일 소론을 표방하게 된다는 점도 조극선의 교유관계에서 매우 주목할 대목이다. 예컨대, 朴東善은 숙종연간 南九萬·尹拯·朴世采와 함께 少論의 영수로 역할하는 朴世堂의 조부이다.

89) 趙克善, 『洽谷日錄』, 〈甲子4月6日〉(1624), “先生曰 今日汝可與沈生遊覽風景 余以家中病患 心欲急還.”

90) 趙克善, 『洽谷日錄』, 〈丁卯8月4日〉(1627), “有申命立者 卽盈德人 嘗受學于先生 今以初試赴京矣.” 이에 따르면, 申命立 또한 영덕 출신 문인으로 파악된다.

91) 趙克善, 『洽谷日錄』, 〈戊辰4月27日〉(1628), “有李時翼 而實之亞婿也 李生之兄亦適來 今方辭去 李生 乃潛窩先生之門人也. 言自江陵歸來 未久.”

92) 趙克善, 『洽谷日錄』, 〈戊辰9月23日〉(1628), “是時得見榜目 蓋取李曼等十四人 而親故盡見屈 可歎 潛窩先生門李行健中第三名矣.” 이행건은 병자호란 때 督戰御史로 활약했고, 좌승지·공조참의를 거쳐 벼슬이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작와문인 가운데 주목할 인물은 경주 출신의 金宗一(1597~1675)이다. 조극선이 김종일을 처음 만난 것은 1624년 10월 16일 이명준의 집에서였다. 김종일은 1624년 봄에 설행된 증광사마사에서 생원·진사 양시에 입격하였으나 東堂試에서 낙방하자 이 해 가을에 예정된 별시 문과 초시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이명준을 찾은 것이었다.⁹³⁾ 비록 김종일은 1624년 식년 문과에서는 낙방했지만 이듬해인 1625년 별시문과에서 장원 합격했다. 이 시험에 함께 응시했던 조극선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한다.

8월 26일. 나와 龍潭公 모두 낙방했다. 모두 12인을 뽑았는데, 두 사람은 전시에 직부한 사람이다. 장원은 영남 사람 김종일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선생의 문인이다. 세상 만사가 모두 운수에 달렸고, 이 또한 운명이니 어찌 하겠는가?⁹⁴⁾

낙방의 상심 속에서도 장원합격자 김종일에 대한 동문의식은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문인 상호간 ‘동문의식’의 인지는 ‘潛窩門下’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뜻했다.

김종일은 어떤 사람인가? 경주 출신인 김종일은 12세에 申之梯(金誠一 門人)의 문하에서 수학했고,⁹⁵⁾ 22세에는 鄭經世(柳成龍 門人)의 문하에서 수학하여⁹⁶⁾ 李滉→金誠一·柳成龍으로 이어지는 退溪學統을 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남인을 표방한 집안의 자제였다. 이런 흐름은 1637년 장현광의 문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더욱 공고화된 측면이 있었다.⁹⁷⁾ 이것이 김종일의 학문·정치적 성향에 대한 기존의 인식인데, 조극선의 일기는 김종일의 학통적 다양성과 관련하여 아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17세기 중엽 이후 당쟁의 격화와 함께 남인 퇴계학파로의 좌정을 당연시하며 여타 학맥의 수용 양상을 은폐하려 했던 영남의 경향을 고려할 때, 김

93)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10月16日〉(1624), “金宗一亦來 金生即居嶺南 受學于先生 其年今二十九 增廣試貫三場中 生進兩科 見屈於東堂 而又中式年初試 故留 將應講也.”

94) 趙克善, 『治谷日錄』, 〈乙丑8月26日〉(1625), “余及龍潭公皆不利 蓋取十二人 而二人則直赴者 壯元乃嶺南人金宗一云 然則是李先生門人也 萬事關數 命也奈何.”

95) 金宗一, 『魯庵集』, 「年譜」〈戊申〉(1608), “公十二歲 春 母夫人使公就學于梧峰申先生 講之梯 即直長公姨兄弟也 見公奇偉聰明超出 學子中最器重焉.”

96) 金宗一, 『魯庵集』, 「年譜」〈戊午〉(1618), “公二十二歲 謁愚伏鄭先生 先生嘗稱之曰金某重如山岳 今世難得底人 每見公必禮貌之.”

97) 金宗一, 『魯庵集』, 「年譜」〈丁卯〉(1637), “公三十一歲 ……七月謁旅軒張先生于仁同府舍.”

종일의 예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종일이 잠와문하에 입문한 것은 이명준의 영덕 유배 5년째 되던 1621년이었다. 김종일은 조극선에 비해 나이도 두 살 아래였고, 잠와문하 입문도 12년이나 늦었지만 문과에 장원 합격함으로써 조극선에게는 적잖은 자극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공의 나이 25세. 잠와 이 선생을 배알했다. 이름은 명준인데, 이때 영덕의 적소에 계셨다. 공은 荷潭 金時讓, 沈絡, 趙克善 제공과 함께 經學을 강론하였는데, 性命과 理氣의 근원에 더욱 정통했다. 잠와 선생께서는 “학식이 精明할 뿐만 아니라 大節에 임하여 그 뜻을 알 수 없는 이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고 했다.⁹⁸⁾

김종일의 「魯庵年譜」는 조극선과의 논변을 수록할 만큼 이 시기 영남의 여타 문집 류에 비해 기록의 사실성이 매우 높으며, 조극선의 일기는 이것의 사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1624년 10월 16일의 상견 이후 조극선은 이명준의 집에서 자주 김종일을 만났고,⁹⁹⁾ 1626년 7월 19일에는 밥을 나눠 먹을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며,¹⁰⁰⁾ 1628년 9월 28일에는 이명준의 조카 李碩基의 주선으로 예조좌랑 김종일, 형조좌랑 吳達天과 호조에서 회합·담론하다 同宿하는 등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¹⁰¹⁾ 물론 조극선의 일기에는 「魯庵年譜」에서 언급한 학문 토론 기사는 찾아볼 수 없지만 김종일이 이명준의 사망 시까지 師生의 의리를 돈독하게 행했음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¹⁰²⁾ 이명준이 陽川에서 사망한 것은 1630년 12월 22일이고, 양근 선영에 장례를 치른 것은

98) 金宗一, 『魯庵集』, 「年譜」(辛酉)(1621), “公二十五歲 謁潛窩李先生 諱命俊 時在盈德謫所 公與荷潭金時讓沈絡趙克善諸公講論經學 尤詳於性命理氣之原 先生曰非但學識精明 臨大節而不可奪者 必此人也.”

99) 趙克善, 『治谷日錄』, 〈丙寅閏6月29日〉(1626), “良久趙校理廷虎氏·金佐郎宗一·閔正有慶氏相繼至 將夕辭出.”; 〈丙寅7月13日〉(1626), “先生遂入右相宅 乃與德興及元基·沈光泗·金佐郎宗一話.”

100) 趙克善, 『治谷日錄』, 〈丙寅7月19日〉(1626), “歸自仁川 過候李先生……金佐郎宗一又相遇 分喫德興夕飯.”

101) 趙克善, 『治谷日錄』, 〈戊辰9月28日〉(1628), “李德興直于戶曹 遂與金佐郎宗一會 而使人招余 乃赴 與語 吳佐郎達天亦至 打話 夜深吳佐郎去 金佐郎取衾枕 宿于此 余不肯取衾枕 而猶且爲二友所挽 假寐 而心既未安 不能久着 睡未罷漏 乃返本曹 金是禮曹 吳是刑曹.”

102) 김종일은 잠와문인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남인을 표방하여 金瑩·尹昉 등 서인 당로자들을 탄핵하는데 앞장섰고, 己亥禮訟 때는 許穆과 함께 3년살을 주장하다 平海에 유배되기도 했다. 1675년 사망 직후 허목은 경연에서 김종일을 ‘嶺南文臣’이자 인조조의 ‘名譽人’으로 일컬으며 표장을 건의하여 都承旨에 추증되었다(金宗一, 『魯庵集』, 「年譜」〈乙卯〉(1675), “是歲閏五月初九日 晝講時 右參贊許穆曰金宗一乃嶺南文臣 而仁祖朝有名譽之人 生時未及大用 此則朝野之所共慨惜 如此之人 不可無表章之典矣 上曰金宗一生時未及收用可惜 特令 贈職承旨 同日十二日 贈職都承旨”).

1631년 2월 16일이다. 조극선은 자신의 일기에 ‘잠와상례’ 관련 김종일의 문상 예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¹⁰³⁾ 이명준의 『잠와유고』, 김종일의 『魯庵集』과 모두 일치한다.¹⁰⁴⁾

이처럼 조극선의 일기는 끝내 잊혀질 수도 있었던 잠와문인들의 동향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성혼에게서 연원하는 牛溪學統의 한 지맥에 대한 사실적 정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사상사의 외연 확대에도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김종일을 매개로 한 기호학[牛溪學]과 영남학[退溪學]의 상통 구조가 보여주는 17세기 초반 조선 지식인들의 학문적 유연성은 정치사와 사상사의 새로운 경계 구획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3) 典禮論爭 조력과 同志意識의 확인

이명준과 조극선 두 사제가 공감했던 학문적 담론은 禮學이었다. 인조는 즉위 직후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부 定遠君의 추숭사업을 전격 추진했다. 이른바 ‘元宗追崇論’이 바로 이것이다. ‘원종추숭론’은 반정 직후 건립한 정원군 家廟祝文의 칭호 문제를 두고 발단이 되었다. 이후 1626년 인조의 생모 啓運宮 능성구씨의 상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가운데 162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632년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숭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원종추숭론’은 李貴·崔鳴吉 등 반정공신계 추숭론자와 정경세·조익 등 비공신계 반대론자 사이에 격렬한 찬반 논쟁을 수반하며 인조 초기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예학자였던 산림 박지계와 김장생의 입장도 상반되었다. 朴知誠가 사대부례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추숭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면 金長生은 왕조

103) 趙克善, 『洽谷日錄』, 〈辛未2月15日〉(1631), “迺抵先生葬所 哭奠…暮金正郎宗一來會.”; 〈辛未2月19日〉(1631), “早朝與二兄出南大門外李德興家 拜于靈座 入語于德興齋舍 閱都正有慶氏及李司禦·金宗一及德載士會至 相見 而諸宰來哭者又多 殊稠擾矣.” 『魯庵集』에 따르면, 김종일은 이명준 사망 시 輓詞·祭文을 지어 애도했다. 만사에서는 이명준의 冰清玉潔한 자품을, 제문에서는 영덕 유학 시절의 사운이 곡진하게 피려되어 있다(金宗一, 『魯庵集』 卷1, 〈輓潛窩李先生〉, “寒水至清白玉寂潔 雖玉潔而水清 亦水消而玉缺 先生之志烈寒水 心貞白玉兮終不可消而可缺 誰復爲先生悲兮 死生貧富 先生兮視之如一.”; 卷2, 〈祭潛窩李先生文〉, “於乎 先生之昔在海曲 遊門下者 不特小子 而小子之蒙愛特異 先生之不以語人者 小子時得而聞 墻頭彈指之語 竹下仰天而泣 緬惟十載 如隔今晨”).

104) 李命俊의 『潛窩遺稿』, 『年譜』 〈庚午〉(1630) 및 〈辛未〉(1631)에 따르면, 사망한 것은 1630년 12월 22일, 禮官의 치제는 1631년 2월 4일, 陽川 발인은 2월 5일, 楊根 선영 안장은 2월 16일에 이루어졌다. 金宗一의 『魯庵集』 『年譜』 〈辛未〉(1631)에는 이명준의 장례를 2월 5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발인한 날짜이며, 만사를 지어 애도한 것도 이 날이다.

례의 특수성에 바탕하여 이를 반대했던 것이다.

조극선의 경우 이명준·박지계는 추송론을 적극 찬성한 반면 조익은 반대함으로써 예학론의 수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혼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三師 주장의 수렴·분석을 통해 자신의 인식을 정립하게 된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조극선은 이명준·박지계와 같은 논리에서 추송을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

전후 10년에 걸친 찬반 논쟁의 과정에서 조극선은 이명준·박지계·조익 사이에서 정보를 채집·전달하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¹⁰⁵⁾ 여기서는 이명준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조극선의 일기에 따르면, 이명준은 정원군의 立廟와 거기에 따른 축문의 칭호에 있어 박지계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했다. 다만, 자신의 찬성론이 인조에게 아부하는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고, 박지계의 주장 또는 사심이 배제된 정론으로 평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명준은 박지계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조정의 상황까지도 예견하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월 25일. 대화가 定遠君의 사당을 건립하는 國禮에 미치자 선생께서, “朴持平(朴知誠)의 논의는 명나라의 陳 아무개의 견해와 우연히 일치한다. 내 소견으로는 박지평의 의론이 매우 옳다. 다만, 나는 본디 예를 아는 사람이 아닌지라 나의 범연한 소견이 이 사안에 牽強附會하여 만약이라도 임금의 뜻에 아부한다는 지목을 받게 된다면 비록 죽은 뒤에도 그 수치를 씻지 못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평소의 소견을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 박지평은 山林의 隱士로 지극히 공정하고 私가 없는 마음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그 말에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그러나 박지평의 상소가 한번 올라가면 우의정 申欽 이하 여러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다룰 것이다. 주

105) 원종추송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것의 역사적 의미가 충분히 해명되었다. 조극선의 일기가 중요한 것은 1632년 원종의 추송이 확정되기까지 서인 내부 이론가들의 동향을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비단 원종추송론 뿐만 아니라 ‘牛栗陞廡論’, ‘禮訟’ 등 조선 후기 정치사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사건의 실제적 이면을 짐작하는 가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원종추송론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고가 참조된다. 이성무 외, 『조선 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김용흠, 『인조대 원종 추송 논쟁과 왕권론』, 『학림』 27,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2006; 이현진, 『인조대 원종추송론의 추이와 성격』, 『북악사론』 7, 북악사학회, 2000; 박종천, 『인조대 전례논쟁(1623~1635)에 대한 종교학적 재평가』, 『종교학연구』 17,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8; 이성무, 『17세기의 예론과 당쟁』, 『조선 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이영춘, 『사계 예학과 국가전례』, 『사계사상연구』, 사계·신독제기념사업회, 1991; 이영춘, 『잡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송론』, 『청계사학』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1990; 서인한, 『인조초 복제논의에 대한 소고: 계운궁구씨의 상장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상께서 만약 박지평을 인정하여 그 의론을 수용하면 신희 등 恬退를 중히 여기는 자들은 모두 인피하여 물러갈 것이고, 박지평을 두둔하는 자는 반드시 모두 벼슬에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자들 뿐일 것이니 그 폐단이 참으로 적지 않다.”¹⁰⁶⁾

이런 가운데 이명준은 박지계의 주장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극선으로 하여금 관련 예설을 초록해 둘 것을 지시했고, 1624년 9월 14일 비로소 그것을 열람한 뒤 박지계의 주장에 더욱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9월 14일. 선생께서 내가 올린 박 선생의 定遠大院君 숭봉 관련 예론을 살펴보시고 “나는 이 의론을 매우 옳게 여긴다.”고 하시고는 공책을 주시면서 후일의 열람을 위해 전사해 두라고 하셨다.¹⁰⁷⁾

이후에도 조극선은 朴知訓(朴知誠의 형) 등을 만나 정경세·이정구 등 조신들이 제기하는 반대론의 추이를 파악하는 가운데 이명준의 열람 편의를 위해 박지계 ‘禮辨’의 필사 작업에도 정성을 쏟았다.¹⁰⁸⁾

10월 29일. 오후에 徒步로 가서 이 선생을 뵈었다. 선생의 병세에 조금 차도가 있었다. …… 내가 필사한 정원대원군 立廟 관련 禮辨 및 疏狀을 올리자 선생께서 다른 사람들의 辨文까지 추가로 전사하라고 명하셨다.¹⁰⁹⁾

조극선의 충실한 전사 작업은 이명준이 예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박지계의

106)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正月25日〉(1624), “因語及國禮 爲定遠君立廟事 先生曰 朴持平所論 與皇明陳某所見暗合 蓋以余所見 則朴持平議論甚是 然余素不知禮 以余尋常所見附會是事 若得諂媚上意之名 雖死 難雪其耻 故不敢以常所見自是也 朴持平則以山林隱士 自抱至公無私之心 所言有何嫌也 然朴持平之疏一上 則申右相以下諸人 將欲以死力爭矣 主上若聽許朴持平 則如申右相諸恬退之人皆必引去 其右之者 必皆好進之輩 其弊固不少也.”

107)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9月14日〉(1624), “先生覽余所進朴先生所論崇奉定遠大院君之禮 而曰 余則甚是此論也 仍以空冊授余 命傳寫以備後覽也.”

108)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9月25日〉(1624), “且拜朴丈 蓋鄭經世爲都承旨 而其下乃趙誠立·鄭廣敬諸人也 都承旨論與禮判李廷龜之議相合 以爲稱考不稱皇字 稱子不稱孝字 而服以墓爲斷誠 可笑也.”; 〈甲子9月25日〉(1624), “且爲李先生寫朴先生禮辨 而展看古訓 以自警省.”; 〈甲子10月16日〉(1624), “朝又寫朴先生禮辨 且教蒙士 遂步往候李先生 先生方晝寢 乃與崇陽及李男俊話 有頃士揚自外返 而入謁先生.”; 〈甲子10月26日〉(1624), “寫得潛治先生禮辨最多.”

109) 趙克善, 『治谷日錄』, 〈甲子10月29日〉(1624), “午後徒步往候李先生 先生疾稍蘇 …… 進以所寫定遠大院君立廟事禮辨及疏章 先生命以加寫諸人辨文矣.”

예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전까지 신뢰와 지지에 대한 표현이 ‘매우 옳다[甚是]’였다면 약 1년이 경과한 1625년 9월에 이르러 ‘극히 옳다[極是]’로 바뀐 것은 ‘확신’의 의미였고, 특히 그가 공감했던 것은 ‘人情論’이었다.

11월 5일. 이 선생을 뵈고 안부를 여쭙었다.…… 선생께서 “정원군 입묘는 仁之(朴知誠)의 말이 극히 옳다. 세인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데, 禮가 어찌 人情과 따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시며 古禮의 설을 들어 그것을 변론하셨다.¹¹⁰⁾

이런 가운데 1626년 1월 14일 인조의 생모 啓運宮 능성구씨가 사망했다. 이 상례는 찬반 양론 속에 소강 상태를 보이던 원종추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이룬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명준과 박지계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했던 조극선도 그만큼 분주해졌다. 이번에는 인조의 복제와 관련하여¹¹¹⁾ 조익이 김장생과 박지계가 예를 논한 글[論禮書]을 요청했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조익과 박지계의 예설은 상반되고, 이명준과 박지계의 의론은 더욱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① 정월 21일. 아침에 선생께서 사람을 보내 김사계와 잠야 선생께서 예를 논한 글을 요청하셨다. 또 말씀하시길, “오늘은 병이 있어 출근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즉시 와야 할 것이다.”고 하셨다고 한다.…… 조 선생께서 집으로 돌아오시자 드디어 국가의 대례를 논의하였는데, 선생의 뜻은 잠야와 자못 상반되었다. 그러나 그 설이 확실치는 않은 까닭에 別記하여 후일에 대비했다.¹¹²⁾

110) 趙克善, 『治谷日錄』, 〈乙丑11月5日〉(1625), “候李先生……先生曰 定遠稱廟事 仁之之言極是 而世人皆不覺悟而非之 蓋禮豈外於人情哉 因舉古禮經之說 以論之.”

111) 당시 인조의 복제에 대해서는 ① 3年說, ② 碁年說[杖碁], ③ 碁年說[不杖碁], ④ 總麻說 등 네 개의 주장으로 나뉘었다. ① 3년설은 박지계의 주장으로서 인조는 부모와 자식의 윤리에 입각하여 정원군·계운궁에 대해 참회 3년복을 입고, 여러 신하들도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② 기년설[杖碁]은 김장생의 주장으로 인조가 선조의 대통을 직승하였으므로 본생부모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定遠君·啓運宮은 인조에게 백숙부가 되는데, 이른바 숙질론이 이것이다. ③ 기년설[不杖碁]은 예조의 주장으로 1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에서는 김장생의 주장과 같지만 인조가 정원군·계운궁을 부모로 칭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④ 시마설은 鄭經世의 주장이었다(李成茂, 「17世紀의 禮論과 黨爭」,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22쪽).

112) 趙克善, 『治谷日錄』, 〈丙寅正月21日〉(1626), “朝者先生送人 求金沙溪及潛治先生論禮書 且曰今日病不仕進 須即

② 정월 24일. 선생(이명준)은 계운궁의 상을 들고 올라오신 것이다. …… 지금 국가의 대례에 있어 선생의 견해는 잠야 선생과 일치했다.¹¹³⁾

특히, 조극선은 계운궁 상례 규정에 있어 박지계와 이귀 등의 연대상을 일정하게 표출하고 있어¹¹⁴⁾ 원중추송론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조극선은 朴知誠 → 李貴·崔鳴吉 → 仁祖로 이어지는 찬성론의 路線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일기에 적어두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의례 논쟁의 와중에서 조극선의 견해는 어떻게 정립되었는가? 조극선은 일부 항목에 약간의 의문을 가지면서도¹¹⁵⁾ 박지계의 예론을 지지 또는 수용했는데, 이것은 결국 이명준의 주장에 대한 동조를 뜻했다. ‘잠야설동조론’은 조익과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추송론자였던 최명길의 견해에 동의를 표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2월 24일. 조 선생께서 돌아오시자 모시고 대화를 나누었다. 말이 요사이 한참 논의되고 있는 국가의 大禮에 미치자 선생께서 나의 의중을 물으셨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선생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는 크게 달랐고, 내 의견에 동조한 이는 朴子秀였다.¹¹⁶⁾

3월 5일. 박장이 다시 사람과 말을 보냈다. 그곳에 가서 정경세가 올린 ‘계운궁의 상에 임금이 지팡이 짚을 수 없다[去杖]’는 취지의 차자와 삼년상을 주장한 崔鳴吉의 ‘萬言筭’를 얻어 보았다. 최명길의 글은 간혹 언어가 순조롭지 못한 흠은 있었지만 매우 명쾌하면서도 直切했다.¹¹⁷⁾

來云云 …… 先生既返宅 遂議以國家大禮 先生之意 頗與潛洽相反 而其說似未確實 故別記以俟後日焉。”

113) 趙克善, 『治谷日錄』, 〈丙寅正月24日〉(1626), “先生蓋聞啓運宮喪而上來也 侍話 佐郎丈自外返 當今國家大禮 先生所見 正與潛洽先生同.”

114) 趙克善, 『治谷日錄』, 〈丙寅正月25日〉(1626), “昨日延平以朴丈書意上筭 而因詆斥廷臣之故 三司爭論以爲邪論 然自有曰 李貴筭中之說 雖多有不中之言 其所陳則是矣 爾等遽以邪論目之者 何也云.”

115) 趙克善, 『治谷日錄』, 〈丙寅2月3日〉(1626), “當今大禮中立廟事 尚有所疑 將欲送問于潛洽先生 乃構草寫之.”

116) 趙克善, 『治谷日錄』, 〈丙寅2月24日〉(1626), “先生既返 陪話從容 語及今日國家大禮 質以余意 直窮到底 而先生之言 與余意大不相同 右余者朴子秀也.”

117) 趙克善, 『治谷日錄』, 〈丙寅3月5日〉(1626), “朴丈復送人馬 往而得見鄭經世請去杖筭及崔鳴吉請行三年萬言筭 崔文雖或有語言之病 實明快直切也.”

조익과의 상반성, 최명길과의 합일성은 이명준·박지계의 주장에 동조함을 뜻했다. 그리고 그것은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예학에 있어 자기 학습 및 인식의 결과였다. 특히 조익이 박지계·이귀·최명길을 싸잡아 공격하는 가운데 박지계에 대해서는 ‘心術罪’로 성토하는 것을 목도했음에도¹¹⁸⁾ 일체의 동요 없이 지론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월 30일, 주상께서 조정의 논의에 구애되어 이미 아우 綾陽君으로 하여금 상주 노릇을 하게 하여 이제는 논의가 진정되었다. 그러나 늘 나의 견해가 행여 잘못된 것은 아닌지 밤낮으로 생각했고, 그럴수록 옳았다는 판단이 들 뿐 그릇되었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다. 또 장난삼아 이와 관련된 문자[禮說僭擬]를 저술하여 적어 둔다.¹¹⁹⁾

무엇보다 그가 일기에서 언급한 「禮說僭擬」는 인조가 박지계의 의론을 수용하여 3년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한 항변적 논설이며, 그의 예학인식의 단면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¹²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극선은 정원군 입묘, 계운궁 상례와 관련된 전례 논쟁의 과정에서 이명준·박지계·조익의 주장을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역할은 조극선의 학문과 식견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조극선에 대한 3사의 신뢰를 반증한다. 이 과정에서 조극선은 3사는 물론 김장생·정경세·최명길·이정구 등의 견해를 취합·분석하는 기회를 얻어 자신의 견해를 정립한 「예설참의」와 같은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예설참의」는 『야곡집』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師가 의도한 학문·사회적 동선 위에서 문견·대화·토론을 통해 온축한 지식이라는 것은 일기를 통해서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학문적 성장, 식견의 확대에 있어 사의 존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조극선의 일기는 매우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118) 趙克善, 『治谷日錄』, 〈丙寅5月20日〉(1626), “先生又力言當今禮制 而甚攻朴先生·李延平·崔完城之非 然且曰 朴某本有誤解文字之病 故其害至於如此 蓋非心術之罪也云.”

119) 趙克善, 『治谷日錄』, 〈丙寅5月30日〉(1626), “主上既迫於廷議 既使綾原君爲喪主 議論已定矣 然每恐余之所見爲非 晝夜思之 益見其是而未見其非 又戲爲著文字以書.”

120) 趙克善, 『治谷集』別集, 〈禮說僭擬〉. 인조가 장기복을 입은 것은 예의 그릇된 적용이며, 박지계의 주장처럼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禮說僭擬〉의 골자이고, 그 이론적 토대는 『儀禮』에 두고 있었다(김학수, 「17세기 湖西의 知性, 治谷 趙克善」, 『아산의 유학자들』(II), 지영사, 2009).

4. 治喪과 계승의식의 표명: 心喪과 褒贈論

1630년 12월 24일 조극선은 문병을 위해 이명준이 우거하던 陽川을 향해 출발했고, 26일 박지계를 잠시 방문한 다음 걸음을 재촉하던 중 27일 길에서 부음을 듣게 된다. 12월 22일 이명준이 사망한지 닷새만이였다.

12월 27일, 길가는 사람으로부터 잠와 선생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경악하여 어찌 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道聽塗說이라 함부로 哀悼 행위를 할 수도 없었다.¹²¹⁾

애통합 속에 양친 喪次에 도착한 것은 12월 30일이였다. 조극선의 일기에 따르면, 이명준은 평생 청빈을 고수하여 만년에는 거처조차 불안정했고, 고작 2~3호가 거주하는 벽촌에서 중 한 사람만 데리고 넉 달을 병고에 신음하다 사망했다고 한다.¹²²⁾ 임종 때는 조카 李碩基로 하여금 諸友들에게 전할 유언 형식의 편지를 받아 적게 했는데, 그 辭意가 몹시 비감했다.

정월 5일, 선생께서 임종하실 때 諸公에게 전할 글을 쓰게 했는데, 그 말씀은 “실날 같은 숨이 곧 끊어질 것 같은데, 여러 합하와 서로 영결하지 못함이 더욱 슬플 뿐입니다. 이 몸이 죽고나면 아들 顯基·道基·元基 등은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부디 잘 가르치고 자식처럼 돌봐주신다면 너무도 다행이겠습니다. 죽음을 앞 둔 터라 기운이 없어 이만 줄입니다.” 였다. 그 아래에 성명을 열거한 사람은 병관 李弘胄, 이관 洪瑞鳳, 예관 金尙憲, 대사헌 張維, 대사성 趙翼, 부제학 李顯英, 승지 徐景雨, 승지 姜碩期, 참판 李景稷, 참지 李榮, 사인 鄭弘溟 등 모두 11公 이였다. 그저께 저녁에 조 선생께서 이를 언급하면서 잠와 선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다.¹²³⁾

121) 趙克善, 『洽谷日錄』, 〈庚午12月27日〉(1630), “聞諸道人 喪已出矣 驚愕失措 而以其道聽塗說也 不敢舉哀.”

122) 趙克善, 『洽谷日錄』, 〈庚午12月30日〉(1630), “留潛窩先生喪次[先生臥病 凡四箇月 不能飲食 醫藥罔功 終於於瘠甚 皮粘乾骨云 且先生一生清貧 無所居止 此乃陽川南面竹叱洞村 而有奴子一人 隣居亦止二三家而已].”

123) 趙克善, 『洽谷日錄』, 〈辛未正月5日〉(1631), “蓋先生臨終 使德輿執筆 貽書于諸公 其辭曰 續息將絕 不得與諸閣下相訣 尤增悲悵 此物一故 子顯基·道基·元基等 子子無所依歸 伏願教誨 顧念無異已出 幸甚 臨窆氣短 只此不具 年月日 下列錄 李兵判弘胄·洪吏判瑞鳳·金禮判尙憲·張大憲維·趙大成先生·李副學顯英·徐承旨景雨·姜承旨碩

이명준의 喪柩가 양천에서 발인한 것은 1631년 2월 4일이었고, 안장 하루 전인 2월 15일에 선영에 도착했다. 이때부터 조극선은 ‘心喪’에 들어가게 된다. 본래 사우간에는 복이 없었지만 이른바 ‘師服’의 측면에서 심상을 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¹²⁴⁾ 조극선 또한 심상에 대한 관심이 깊어 그의 일기에도 鄭述의 門人 李厚慶, 任叔英의 문인 權恁 등 몇몇 심상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¹²⁵⁾ 당초 조극선은 초하루와 보름마다 設位·行哭하려 했지만 박지계의 권유로 초하루에만 행곡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¹²⁶⁾ 기간을 暮年, 즉 1년으로 한 것은 程子와 李珥의 입론을 따른 것이었고¹²⁷⁾ 최종적으로 首經을 쓴 채 1년복을 입음으로써¹²⁸⁾ 弟로서의 禮와 情을 다한 것이다.¹²⁹⁾

한편 조극선은 치상 중에도 사문에 대한 존모 및 계승의식의 일환에서 이명준의 유고[散藁]를 정리했으며,¹³⁰⁾ 온양군수에 재직하던 1648년 10월에는 사문추양론을 전개함으로써 사후 18년만에 이명준에게 좌찬성의 증직이 내려지게 된다.¹³¹⁾

期·李參判景稷·李參知榮·鄭舍人弘溟 凡十一公也, 再昨之夕 趙先生生語及于此 爲之泣下矣.” 이 임중 시 서한은 『潛窩遺稿』(卷2)에도 〈托諸孤書〉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데, ‘治谷日記云先生臨終 使德興執筆貽書 其後浦潛生語及于此 爲之泣下矣’라 하여 『治谷日錄』를 참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서한 말미의 ‘죽음을 앞두고 기운이 없어 이만 줄입니다(臨窆氣短只此)’라는 6자는 이명준 친필이라 한다.

- 124) 예컨대, 南冥門人 崔永慶은 ‘심상’ 3년을 행했고(李玄逸, 『葛庵集』卷28, 〈守愚堂先生崔公行狀〉), 율곡문인 李貴는 李珥의 상에 心喪에 그치지 않고 喪服을 지어 입고 출입하여 세간의 조소를 받은 예도 있다(柳穆, 『修巖集』卷2, 〈答李器成癸酉〉, “惟甲申李栗谷之喪 李延平獨製功緦之服 出入必服 人以爲笑 以此觀之 製服之不可爲則決矣”).
- 125) 趙克善, 『治谷日錄』, 〈癸亥10月5日〉(1623), “又曰 姪女婿權恁 嘗受學於任疎庵叔英 任公沒 爲行心喪三年云.”; 〈丁卯6月28日〉(1627), “有內贖直長李厚慶 卽靈山人也 來見姜丈 以其爲城主也 李乃察岡高弟 反正初以昌樂察訪 筮仕 蓋於庚辛年間 聞有爲察岡心喪三年者 記得姓名 必此人也.”
- 126) 趙克善, 『治谷日錄』, 〈辛未2月15日〉(1631), “爲潛窩先生行哭[余意爲師心喪 與凡服有異 當於朔望 皆設位以哭 而朴先生以爲 當如凡服之例 只月朔行哭爲是].
- 127) 趙克善, 『治谷日錄』, 〈辛未正月7日〉(1631), “余心喪 則因程子·栗谷及先生之言 定行暮年.”
- 128) 趙克善, 『治谷集』卷11, 附錄「年譜」〈庚午〉(1630), “冬 哭潛窩李先生喪于陽川 加麻服甚.”
- 129) 『治谷日錄』에 따르면, 조극선은 3·5·6·7·8·9·10·11·11(閏)·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매월 초하루에 設位·行哭한 것으로 확인된다. 4월이 빠진 것은 ‘서을 체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 130) 趙克善, 『治谷日錄』, 〈辛未1月28日〉(1631), “今寫李先生散藁.”; 〈辛未1月29日〉, “寫李先生散藁畢.” 이명준의 유문은 아들 이현기, 생질 신익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蒐集·編次되고, 1749년경에는 定稿本이 완성되었으며, 실제 간행은 19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위 기사는 조극선이 이명준의 유문 정리 및 『潛窩遺稿』의 편찬에 일정하게 기여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정황은 『잠와연보』에 실린 이명준의 임종기사에 『治谷日錄』이 인용된 것에서 더욱 짚어진다.
- 131) 趙克善, 『治谷集』卷2, 〈請褒潛窩李先生清白疏(戊子)〉; 『인조실록』 권49, 인조 26년 10월 1일(임진); 李命俊, 『潛窩遺稿』, 「年譜」〈戊子〉(1648), “門人溫陽郡守趙克善上疏請褒公清白.”

V. 맺음말

조극선의 일기 『忍齋日錄』과 『浍谷日錄』은 天然스런 기록의 뭉치가 아니다. 사실의 오류 또는 왜곡과는 별개로 무엇을 기록하고, 또 무엇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오로지 조극선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이것이 일기가 지닌 양면성이다.

또한 자료는 저자 또는 편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전하는 속성을 가진다. 바로 이 지점에 연구자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비록 일기는 주관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문헌에 비해 편집성이 덜하고, 취택된 기사에 한정할 때, 오류 또는 왜곡이 적다는 점에서 자료적 신선함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유념할 것은 있다. 행간을 읽어내는 ‘讀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연구자는 저자의 심중을 간파할 수 있고, 거기에 실린 기록 또한 객관화시킬 수 있다. 이 글은 ‘저자의 의중 간파’와 ‘자료 해석의 객관화’라는 두 가지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의 해명을 염두했다.

조선은 신분사회인 동시에 경쟁사회였다. 과거는 경쟁 및 능력사회로의 이행을 단적으로 보여준 제도였고, 상속의 한 형태인 ‘別給’ 또한 경쟁과 능력을 부추긴 사회문화적 관행이었다. 학문의 영역도 이와 별개일 수는 없었다. 뛰어난 석학에게 줄지어 입문하여 사제관계를 맺었던 것은 그것이 자신에 이롭기 때문이었다. 그 이로움은 ‘지식과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는 산법의 결과일 공산이 컸다. 아무리 義理를 강조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利’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이를 추구하는 자를 ‘謀利輩’로 지목하여 그 명예를 훼손시켜도 ‘利’가 종식될 수는 없다.

‘道學’과 ‘義理’로 포장된 조선의 지식인 사회는 너무 미화된 측면이 있다. 학문への 전념을 위해 과거를 통한 영달을 포기했다는 기사는 개인 전기류의 공통 테마를 이루었고, 가난·검소·청백은 지선의 정신사적 가치로 고착화되었다. 모든 선비가 학문에 종사하고, 모든 사람이 가난해야만 비로소 조선은 문명국가가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극선과 이영원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극선은 자신에게 이로운 선택을 했을 뿐이고, 기존의 의리관에 사로잡힌 사회는 그런 그를 질타하고 있다. 후자에 대한 옹호가 기존 연구의 시각이었다면, 이 글은 전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초점이 있다. 그것이 17세기 조선의 실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극선과 이명준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義’와 ‘利’의 절충이다. 이명준은 서울의 문벌가문 출신으로 16세기 조선의 최고 지성 성혼에게서 배웠고, 문과에도 장원한 수재였다. 문벌과 학벌 그리고 능력까지 갖춘 비범한 존재였던 것이다. 조극선이 그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했고, 이것은 利의 작동이다. 예상 외로 이명준은 엄정하면서도 포용적 인품의 소유자였고, 세심한 배려도 놓치지 않는 다감한 사람이었으며, 과거 출신임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학자였다. 조극선의 잠와문하 입문이 利의 작동이었다면 그 관계를 수십년 동안 지속시킬 수 있었던 힘은 인간·학문적 감화가 養生시킨 ‘의리’였다. 利와 義가 절충되어 조화를 이루었기에 둘의 관계는 아름다운 像으로 남을 수 있었다.

조극선이 살았던 17세기는 정치적으로는 서인과 남인의 정쟁이 격화되고, 학문적으로는 기호학과와 영남학과의 대립이 고개를 들던 시기였다. 그 결과 黨內婚이 일반화되었고, 정치·학문적 노선 수정은 점차 ‘換父易祖’ 또는 ‘背父叛祖’로 규탄되어 行身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다. 이것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통념적 시각이다. 그런데 조극선은 이와는 사뭇 다른 사상계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金宗一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조극선 일기는 김종일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기술되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우복문인이었던 김종일은 정경세를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으로 치부했던 이명준의 문하를 동시에 출입했고, 그 스승의 사망 때까지 제자로서의 예를 다했다. 기호학[牛溪學]과 영남학[退溪學]의 간극이 존재했지만 김종일은 양측을 왕래하며 자신의 발전을 꾀했다. 김종일의 양문 출입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금기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극선 일기가 전하는 요점이며, 이것은 17세기 초반까지 유지되었던 조선 사상계의 유연성에 대한 명백한 증언이다. 그 시대를 살았던 당사자들은 혐의하지 않았던 것을 후대의 연구자들이 문 제삼는 것은 넌센스에 속한다.

조극선 일기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완벽한 기록일 수는 없다. 과장에서 代筆·代作을 서슴없이 기술한 것에서는 뻔뻔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극선과 그가 남긴 일기와의 숨바꼭질은 조선시대 지성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개척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어 수고롭지만은 않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趙克善, 『治谷集』.

趙克善, 『忍齋日錄』.

趙克善, 『治谷日錄』.

許筠, 『惺所覆瓿藁』.

宋時烈, 『宋子大全』.

金尙憲, 『清陰集』.

鄭述, 『寒岡全書』.

李潤雨, 『石潭集』.

『德川師友淵源錄』.

曹植, 『南冥集』.

朴世采, 『南溪集』.

李瀛, 『星湖僿說』.

申欽, 『象村稿』.

『聯芳集』.

李命俊, 『潛窩遺稿』.

金宗一, 『魯庵集』.

柳軫, 『修巖集』.

金長生, 『沙溪全書』.

김용흠, 「인조대 원종 추승 논쟁과 왕권론」, 『학림』 27,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2006.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_____, 「17세기 湖西의 知性, 治谷 趙克善」, 『아산의 유학자들』(II), 지영사, 2009.

_____, 「鄭述(1543-1620)의 학자 · 관료적 삶과 안동부사 재임」, 『영남학』 17, 2010.

_____, 「寒岡 鄭述의 學問淵源」, 『한국학논집』 4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박병련, 「박세당 ‘虛文’비판의 정치사상적 의미와 정치적 행동의 특성」, 『서계 박세당 연구』, 集文堂, 2006.

박병련 · 정만조 · 이영춘 · 신병주 · 김학수, 『海州吳氏 楸灘家門을 통해 본 朝鮮後期 少論의 존재 양상』, 태학사, 2012.

박종천, 「인조대 전례논쟁(1623~1635)에 대한 종교학적 재평가」, 『종교학연구』 17,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8.

서인한, 「인조초 복제논의에 대한 소고: 계운궁구씨의 상장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禹仁秀,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1999.

李成茂·鄭萬祚 外,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李迎春, 「潛治 朴知戒의 禮學과 元宗追崇論」, 『清溪私學』 7, 1990.

_____, 「사계 예학과 국가전례」, 『사계사상연구』, 사계·신독재기념사업회, 1991.

이현진, 「인조대 원종추승론의 추이와 성격」, 『북악사론』 7, 북악사학회, 2000.

Abstract

Perspectives on Teacher-Pupil Relations among 17th Century Intellectuals as Examined through the Diaries of Jo Geuksun: Hiding and Revealing

Kim, Hak-s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upil-teacher relations among intellectuals of the Sarim school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by analyzing *Injaeillok* (忍齋日錄) and *Yagogillok* (治谷日錄), which were diaries kept by Jo Geuksun, an official and member of the literati in the 17th century. Through out his life, Jo Geuksun studied under four teachers: Lee Yeongwon, Lee Myeongjun, Park Jigye and Cho Ik.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relations between Jo Geuksun and his teachers from the dual perspectives of the concepts of hiding and revealing. The analytical focus of the forme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Jo Geuksun and Lee Yeongwon (pen name Yonggye), while the latter focuses on him and Lee Myeongjun (pen name Jamwa).

Jo Geuksun tried hide his connection to Lee Yeongwon as his teacher during his adolescent years, and ultimately denied their teacher-pupil relationship itself. The reason was rather simple: Lee Yeongwon's lineage and scholarship fell short of his expectations. Jo came to the conclusion that Lee Yeongwon was not beneficial to his growth as a scholar and an official. What mattered to him was his own interests (利). This illustrates that, although the 17th century is referred to as the "Era of Loyalty and Cause," no ideology could control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human beings.

Meanwhile, Lee Myeongjun was honored by Jo Geuksun to an extent rivalling

his parents or the king. First of all, Lee Myeongjun was of high birth from a prestigious family in the capital of Joseon, studied under Woogye as an authentic successor of the Kiho school, and was an elite member of the literati who won first place in the stat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addition, he was a man of integrity and upheld his scholastic gravitas, representing the image of an ideal teacher in this era. Jo Geuksun's decision to become a pupil of Jamwa was doubtlessly influenced by his personal interests. His sustained relationship with his teacher, however, had its basis on shared values. This implies that an appropriate intersection of personal interests (利) and moral values (義) ensured the continuation of the relationship. This paper began from a modest reflection on the research o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Joseon, a field susceptible to accusations of beautification.

Key Words

Jo Geuksun, Lee Yeongwon, Lee Myeongjun, Park Jigye, Cho Ik, *Injaeilok*, *Yagogillok*, Perspectives on teacher-pupil relations, Woogye School, Soron (Young doctrine)